

## ‘공항~병원’ 백신 수송, 3성 장군이 지휘한다

코로나 백신 내달부터 도입  
수도권 의료진 우선 예방 접종  
국방부, 57개 부대 528명 투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

다음 달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인별 선택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5면

첫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순차적으로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호남·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한다.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에는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하도록 한다.

안전한 백신 수송을 위해 군이 주축이 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가 백신 유통의 전반적 상황을 관리한다. 3성 장군이 지휘하는 지원본부는 현역 군 간부 34명, 관계부처 공무원 7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57개 부대, 528명으로 구성된 국방신속지원단을 추가 편성해 지원본부가 요청하면 군 자산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 백신 수송은 군 헬기를 긴급 투입한다.

2월~	5만 명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3월~	50만 명	-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요원
5월~	850만 명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노인재가 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7월~	국민 70%	- 성인(19~64세) 만성질환자 - 소방, 경찰 등 필수인력 -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초저온에서 보관·유통해야 하는 백신 수송은 질병관리청이 계약을 체결한 전문 민간업체가 맡는다. 정부는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와의 계약도 체결했다. 군과 경찰은 교통사고 등 우발적 상황 대응과 방호·경계 상황, 수송 과정 감독·통제 역할을 담당한다.

접종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접종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250개가 필요한데 실내체육관과 시민회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 중심으로 현재까지 427개소가 후보시설로 선정됐다”며 “위탁 의료기관도 애초 목표인 1만 개보다 많은 1만3317개의 의료기관이 후보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가동한다. 접종 전 예진을 거쳐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는 등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접종 이후엔 15~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 여부를 살피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진욱 공수처장이 28일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협 부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인 만큼 헌법을 전공한 저와 보안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개했다. 김 처장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차장과 수서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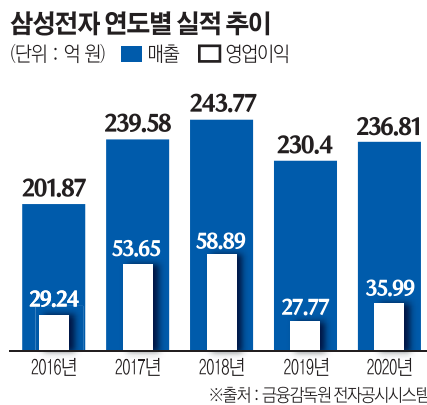
## 영업익 36조 삼성전자, 배당 13조 쏜다

전년보다 30%↑ ‘역대 4번째’  
매출은 2.8% 증가한 236.8조  
“시설투자 확대…M&A 추진할 것”

삼성전자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파운드리(칩 위탁 생산) 등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연간 배당액을 9조 8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주환원정책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35조9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이다. 매출은 총 236조8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2.78%) 증가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영향으로 예년보다 부진한 출발을 보



였으나 3분기 들어 펜트업(Pent Up·역놀린) 수요가 폭발하고 비대면 집속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대부분 사업부가 선전했다.

최운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CFO)은 4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에서 “기존 산업에서 시장 주도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신규 산업에서도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유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략적으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2017년 자동차 전장회사인 하만 인수 이후 M&A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더는 M&A 기회를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110조 원이 넘는 유동성 자산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기업 등 인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3년간 전략적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시설투자는 약 38조5000억 원이며, 사업별로는 반도체 32조9000억 원, 디스플레이 3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2018~2020년 주주환원정책에서 발생한 잔여 재원으로 특별 배당을 포함해 총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을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 원이 넘게 됐다. 배당금은 11조 원에 달하는 (故)고 이근희 회장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영록 기자 syr@

## 김태년 “더 과감하게 규제 혁신할 것”

상의·민주당 ‘정책간담회’ 개최  
박용만 회장 ‘입법 호소’에 화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법안을 처리해 기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국가와 사회에 임팩트가 큰 장기 미처리 법안과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들, 특히 샌드박스로 검증된 법안들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 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과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다.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2011년 18대 국회 때인데 10년이 넘도록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특례기간 종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자동 연장되는 내용의 샌드박스 3법 등을 포함한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민주당과 국회가 전폭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육성 분야에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은 혁신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경제계와 국회 간 ‘상설 입법절차’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수능 11월 18일 예정대로 치른다

교육부, 3월 개학도 연기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관련기사 18면

유엔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

자로 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개학 연기 없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매 학년 법정 수업 일수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3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한다. 지난해 2주간 연기됐던 수능도 올해는 예

정대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8일 시행된다. 유 부총리는 “고3은 지난해 기준을 유지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교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처럼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학습’ 명목으로 신청하면 각 교육청이 제시한 일까지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손현경 기자 son89@



# KT, 콘텐츠 왕국의 꿈 중심에 '스튜디오 지니'

### 대형시리즈 매년 20개 공개 콘텐츠회사 9곳 총괄법인 세워 투자·기획·제작·유통 윈스톱 수익성 낮은 통신 계열사 정리

KT가 콘텐츠 전문 기업을 신설한다. 지난해 밝힌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으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Digico)'으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

KT는 28일 그룹 내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결집해 투자, 기획, 제작, 유통을 아우르는 콘텐츠 전문 기업 'KT 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은 지니뮤직, 스토리위즈, KT 올레, KT 스카이라이프, KT 시즌 등 기존 KT그룹의 미디어콘텐츠 회사 9곳을 총괄한다. 미디어 콘텐츠 자회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더해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외부 협력 및 제휴 △외부 투자 유치 등을 주도할 예정이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속도를 낸다. KT의 웹소설·웹툰 전문 자회사 스토리위즈로 발굴한 원전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국내 유수의 제작사들과 협업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대형 오리지널 콘텐츠 시리즈를 연 10~20개 공개할 계획이다.

신설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는 KT그룹 내 콘텐츠 전문가인 윤용필 사장이 내정됐다. 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인 스카이트비(skyTV) 대표이기도 한 그는 KT 스튜디오지니 대표를 겸할 예정이다. KT는 운 사장 외에 향후 외부에서 콘텐츠 전문가를 영입해 공동대표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미 1200만 명이 넘는 미디어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입자는 1259만 명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TV(IPTV)인 올레tv 873

만 명,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257만 명 등이다. 지난해 7월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사업자 현대HCN을 인수하며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더 공고히 했다.

KT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을 그룹의 핵심 성장 사업으로 키우는 한편 수익이 나지 않는 통신 자회사는 정리에 나섰다. KT 그룹의 1호 자회사인 KT파워텔이 첫 타자가 됐다. KT는 21일 이사회에서 KT파워텔을 디지털 보안 장비 제조업체 아이디스에 매각하기로 했다.

그룹의 1호 자회사인 동시에 통신 분야임에도 KT가 KT파워텔을 매각하기로 한 데에는 그룹의 고질적 부실을 털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T파워텔은 무선 통신 서비스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했다. 2010년 연 매출액은 1270억 원이었으나 2019년 627억 원으로 줄었다.

KT는 지난해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회사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성장과 시너지가 없는 그룹사의 경우 과감하게 재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기자 간담회에서는 "통신사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11월에는 T커머스 사업자인 KTH와 모바일 쿠폰 비즈니스 업체 KT엠하우스를 합병하며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천명했다.

향후 정리 대상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유선전화(PSTN) 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경영진은 노이즈를 감수하면서도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부문은 정리하고 성장 산업은 육성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 반발과 정부가 PSTN 사업의 점진적 축소를 승인해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IMF "韓, 추가 재정지출로 경제정상화 속도 높여야"

### "OECD 대비 소상공인 비중 커 코로나 안전망 구축 검토해야"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논의에 대해 "다른 모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 대해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지원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밝혔다.

IMF는 연례회의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과 경제 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토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회의 결과에 대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재부

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휴 경제력은 경제력 중 실제 생산·투자·고용 등으로 쓰이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IMF는 코로나19 피해 대상에 대한 선택적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해서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 재정건전화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에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며 "추가적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규제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3월 15일 금지 조치 종료 후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다음달 1일부터 지급

###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 3개월 지역화폐로 온라인 신청도 동시에 시작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음 달 1일 개시한다. 이재명(사진) 경기지사는 28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우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우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지

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 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 3개월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도민 1399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2-1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선 개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94-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 규모: 연장(L) 256m, 면적(A) 2,109㎡
  - 사업시행기간: 2020. 03. 11. ~ 2023. 03. 10.

###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소재지	지번(편입토지조서(당초))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783, 148-10, 194-2, 194-4, 196, 194-9, 195-4, 195-7, 194-17, 194-11, 194-14, 194-13, 782, 192-6, 192-4, 772-1, 226-1, 226-2, 226-8, 226-11, 226-7, 226-9, 226-10, 230-4, 223-2, 223-1, 223-4, 224-3, 147-8, 147-11, 148-5, 148-11, 224-6, 225-3, 782-1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을 포함, 자세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는 열람장소(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 가능.

###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열람기간: 2021. 1. 29. (금) ~ 2021. 02. 15. (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1)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화성사업소(TEL:031-290-3215 / FAX:031-290-329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평교로 152 평교연구시설 2층 한국부동산원
  - 2) 화성시청 도로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번지(화성시청) 도로과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해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임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화성사업소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예정)면적(㎡)	토지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제기 또는 소송

### 6.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 불명의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031-290-3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2-2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우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25호선 개설공사
  - 사업시행지역: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71-46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
  - 사업 규모: 연장(L) 133m, 면적(A) 1,600㎡
  - 사업시행기간: 2020. 06. 01. ~ 2022. 12. 31.

###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소재지	지번(편입지번)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71-57, 471-46, 471-58, 471-51, 471-55, 471-56, 471-50, 471-39, 471-54, 471-52, 471-53, 471-60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편입 토지 상 지장물을 포함, 자세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는 열람장소(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 가능.

###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열람기간: 2021. 1. 29. (금) ~ 2021. 02. 15. (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1)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화성사업소(TEL:031-290-3215 / FAX:031-290-329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평교로 152 평교연구시설 2층 한국부동산원
  - 2) 화성시청 도로과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번지(화성시청) 도로과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해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임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화성사업소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지소재지	지번	편입(예정)면적(㎡)	토지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제기 또는 소송

### 6.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 불명의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031-290-3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올 매출 259兆” 신기록 도전

“2분기 신규 서버 수요 본격 확대 1zD램·6세대 V낸드 전환 가속화 증저가 5G폰 확대 등 수익성 개선” 코로나 재확산 등 불확실성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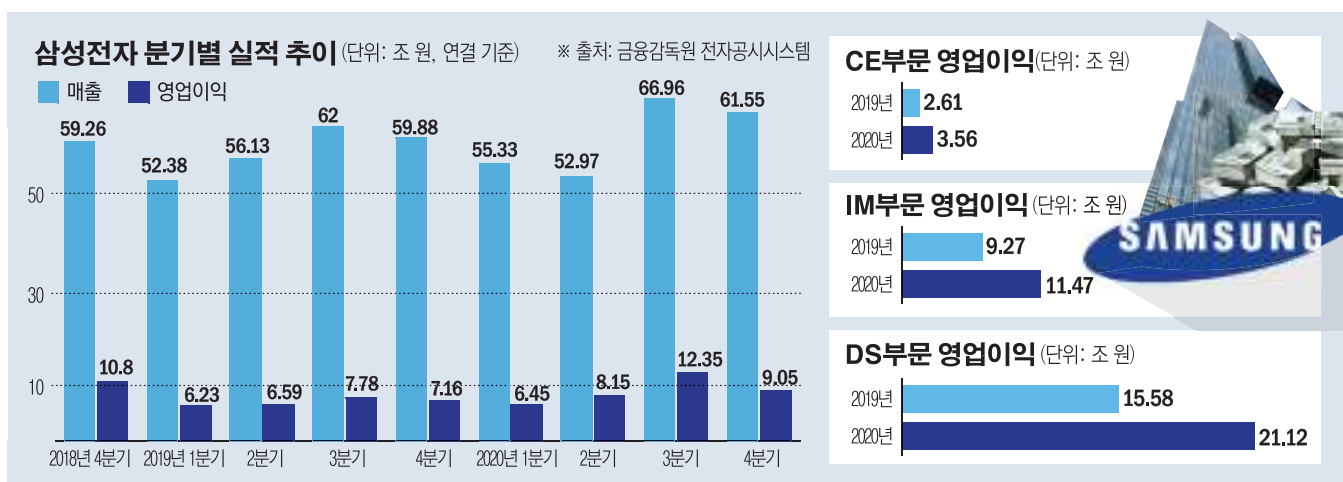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 최대 매출 사냥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위험이 남아 있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236조8100억 원, 영업이익 35조9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4분기 매출은 61조5500억 원, 영업이익은 9조5000억 원을 거뒀다.

반도체는 지난해 4분기 매출 18조1800억 원, 영업이익 3조8500억 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사업은 4분기 모바일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데이터센터와 PC 시장도 양호해 수요는 탄탄했다. 다만, 가격 하락 지속, 달러 약세 및 신규 라인 초기비용 영향으로 이익은 줄었다.

4분기 D램은 스마트폰 판매 회복,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PC 수요 강세, 신규 GPU(그래픽처리장치) 출시 등의 영향으로 견조한 수요를 보였다. 낸드는 모바일·소비자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에서 수요가 탄탄했으나, 서버는 상반기 데이터센터 구매 확대 영향으로 4분기에는 수요가 다소 약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 D램 비트그룹(비트 단위 출하량 증가율)은 10% 선이었고, ASP(평균 판매가격)는 한 자리수 후반대의 감



소를 기록했다. 낸드 비트그룹은 4분기에 한 자리수 후반이었고, ASP는 10%대 하락했다.

DP(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4분기 매출 9조9600억 원, 영업이익 1조7500억 원을 거뒀다. 스마트폰, TV 등 주요 제품 수요 회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IM(IT·모바일) 부문은 매출 22조 3400억 원, 영업이익 2조4200억 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시장은 연말 성수기 영향과 점진적 시장 회복으로 전 분기 대비 수요가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휴대폰 6700만 대, 태블릿 1000만 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ASP는 태블릿을 포함해 205달러였다.

CE(소비자가전) 부문은 매출 13조 6100억 원, 영업이익 8200억 원을 기록했다. TV 시장은 연말 성수기 선진시장 중심의 펜트업(Pent Up) 수요 강세로 전 분기 대비 확대됐다. 생활가전 시장도 신

시장의 경제활동이 점차 재개되며 수요가 소폭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에 맞서 최대 실적에 도전한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액 전망치는 258조 7700억 원으로 2018년 반도체 초호황 당시의 최대 매출액 243조7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익 역시 46조 6800억 원으로 2018년(58조8900억 원)에는 못 미치나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1분기 들어 서버 D램은 고객사 재고 조정 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부터는 신규 서버 CPU 관련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서버 수요 전망 역시 밝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z(10나노미터급) D램 및 6세대 V낸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는 한편, EUV(극자외선)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제고할 계획

이다.

시스템LSI는 5G(5세대 이동통신)·SoC(시스템온칩)·고화소 센서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으로 적극 대응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EUV 5나노 양산 확대 및 응용처 다변화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인텔의 아웃소싱(외주생산) 확대가 파운드리 시장 규모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은 변수다. 삼성 측은 “수요 변동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2017~2018년 수준의 빅사이클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선은 플래그십 제품과 중저가 5G 라인업을 강화해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원가 구조 개선 등 수익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휴대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태블릿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E는 프리미엄 제품을 확대하고 마케팅 효율화와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지속 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삼성 “사회적 책임” 주주환원 강화 JY 등 오너가 배당금만 1兆 넘어

### 주당 1932원 ‘특별배당’

삼성전자의 새로운 배당 정책은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며 향후 지속적인 배당 확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故) 이진희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장기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주당 1933원의 지난해 4분기 배당금액을 확정했다. 총 금액은 13조1243억 원이다. 정규 배당(354원)을 제외하면 주당 1578원, 총 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애초 시장에서 예상하던 규모를 훨씬 웃돈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과 시설투자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잔여 재원 7조~8조 원, 일반주 기준 주당 1000원 안팎의 특별배당을 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향후 3년간 배당금을 9조8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주환원정책도 나왔다. 2018~2020년 배당금 규모는 9조6000억 원이다. 정규 배당으로 지급되는 잉여현금흐름 50%를 넘어서는 잔여 재원은 조기 환원하는 안도 도입됐다.

올해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 시기에 접어들며 잉여현금흐름이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규모로 배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배당정책은 이 부회장의 ‘책임 경영’과 ‘주주 친화 경영’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체제에서 삼

성전자는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주주환원책을 강화해왔다.

18일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두 번째 옥중 메시지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투자와 고용 창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 역시 이날 열린 4분기 콘퍼런스 콜에서 특별배당 배경과 관련해 “개인 주주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움직임은 고 이진희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재원 마련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지난달 결정된 이 회장 주식 지분에 따른 상속세는 11조400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총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년간 분할납부한다 해도 매년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배당 확대는 재원 마련의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삼성 총수 일가는 1조 원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이 회장의 지분인 삼성전자 보통주 2억 4927만3200주(4.18%), 우선주 61만 9900주(0.08%)에 나오는 배당금은 총 7462억 원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4202만150주(0.70%), 흥라희 전리움미술관 관장 지분인 5415만3600주(0.91%)에 각각 1258억 원, 1620억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그린뉴딜 로 만들어가는

# 가치있는 에너지

일상에서 만든 청정 에너지가 안전한 미래를 설계합니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있는 에너지  
**KOEN**이 만듭니다.

영농형태양광(67MW)

군산수상태양광(18.7MW)

탈라해상풍력(30MW)

**KOEN**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KOEN**은 정부가 2030년까지 세운 해상풍력발전 목표 1만2천 MW의 33%인 4천 MW의 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확보, 해상풍력발전을 선도합니다.

**KOEN**은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가 가능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에너지생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질병청, 온도·위치 실시간 확인... 개인이 백신 선택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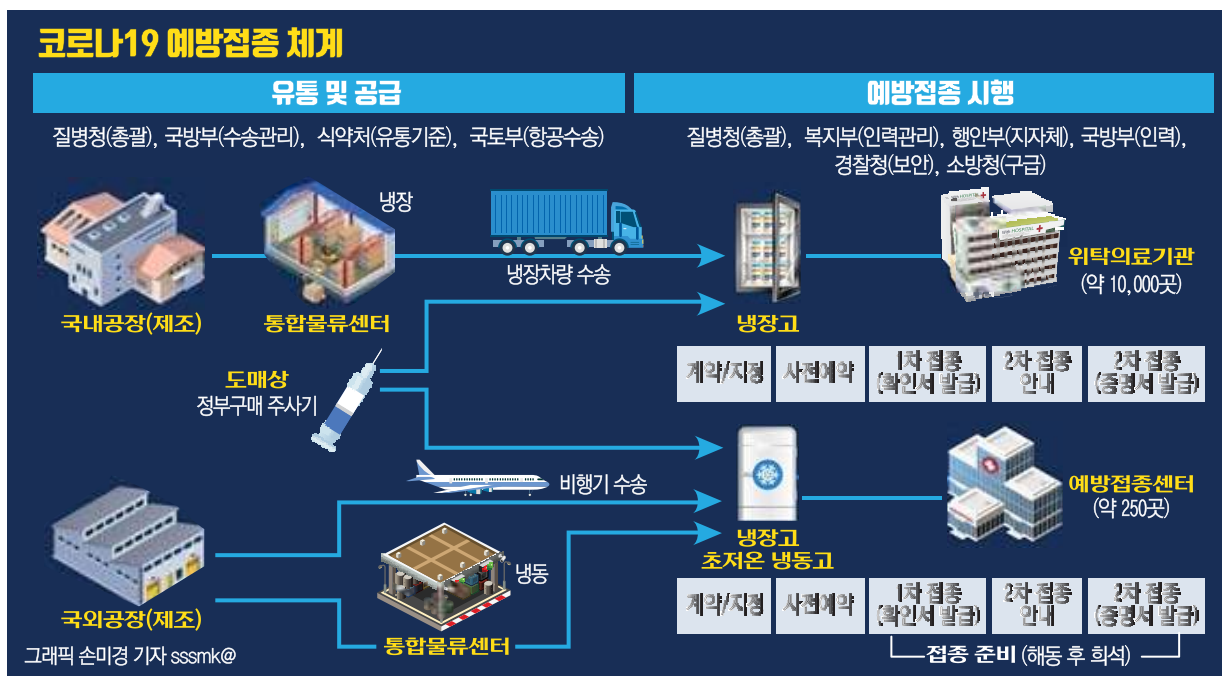
## 보관·유통·공급 어떻게

SK바이오사이언스 수행기관 관제센터 구축 콜드체인 관리  
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은 개인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개인별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도 개인의 백신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2분기 이후 접종자는 접종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백신을 선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전국 250개 예방접종센터와 1만여 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접종센터에는 보관온도가 낮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는 바이러스전달체 백신이 각각 공급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은 바이



## 예방접종 대상 확인 및 예약 절차

**개인별 예방접종 시기 안내**

- 연령
- 기저질환 여부
- 직업 등 정보입력

누리집 접속

**예약 안내**

- 질병관리청: 예약가능 안내(SMS 등)
- 예방접종 대상: 예방접종예약 - 누리집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 65세 이상, 일반국민 등
- 우선순위 대상기관 근무자

※ 예방접종 대상인 경우 가까운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1차 예방접종 가능 시기를 선택하여 예약

예방접종대상 → 예방접종의향 제출 → 예방접종 실시  
 대상기관(병원 등) → 예방접종 계획 수립 → 백신공급 등 일정 조율  
 질병관리청

리스벡터 백신이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다. 백신별로 접종 횟수·간격도 다소 다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되며,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된다. 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하면 된다.

관건은 보관·유통이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각각 영하 75℃, 20℃ 초저온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

언스를 '코로나19 백신 유통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엠투클라우드가 협력업체로 참여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실시간 온도 관리와 백신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추적시스템은 백신 운송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주행 경로를 확인하고, 백신 포장용기 내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넣어 콜드체인 유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도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

부'를 구성해 공항부터 물류창고, 접종기관(보건소·의료기관·접종센터)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지침'을 마련하고, 운송에 대한 사전 모의훈련 시행으로 운송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대상은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을 제외한 전 국민이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

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진료비 본인부담액(30만 원 이상 시), 간병비 일 5만 원, 장애비 30만 원 등이다. 사망 시에는 20년치 월 최저 임금액(2020년 기준 4억30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100% 수준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적시 공급이 집단 면역 시기를 결정할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구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백신은 총 5600만 명분이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0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와 별도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공급받는다.

정부는 전 국민 대비 108% 규모의 백신이 확보돼 접종 목표 이행 및 통상적 집단

## 빠른 공급 위해 식약처 허가심사 기간 180일→40일 단축

면역을 확보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면역력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이나 백신별 이상반응 등을 고려해 노바백스 등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 중이다. 노바백스와는 2000만 명분의 추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와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40일, 국가출하승인 기간을 2~3개월에

"전문가 자문 거쳐 안전성 확보"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현재 정식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뿐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일부터 심사를 시작해 31일 자문단 회의를 거쳐 2월 중 허가된다. 화이자 백신은 25일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품목허가 전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접종에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발·공급된 만큼 안전성 우려가 뒤따른다. 정부는 각 제조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세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를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자에 관한 임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논란

이 유럽에서 불거진 바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생약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자 대상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통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의 논란과 별개로, 최종 판단은 식약처의 손에 달려 있다. 백신영가 톨리대 의대 명예교수는 "유럽의약품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이는 참고사항일 뿐, 우리는 식약처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HI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당신의 능력개발 레시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담어드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Q-Net: 큐넷을 조심스레 킁!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을 알게 됐어 기쁨에 실실!  
 WORLDJOB+: 월드잡을 골고루 부려 부려!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정말 뛰어난!  
 TV WORK NET: 한국직업방송 한국직업방송을 데치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살짝 살피고



# K바이오, 글로벌 의약품 '생산기지 도약' 절호의 기회

지난해 2조 수주한 삼성바이오 2년 내 세계 위탁생산 30% 전망 SK바이오, 해외백신 줄줄이 계약 'CMO 통합법인' SK팜테코 출범



K바이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수요가 커지면서 일찌감치 설비를 확충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글로벌 생산설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약 출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요법 증가, 소규모 바이오 기업의 확산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 파마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가 2020년 2872억 달러에서 연평균 9.8% 성장해 2024년 41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은 글로벌 CMO 시장이 같은 기간 133억 달러에서 218억 달러까지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완공 기대감 = 국내 대표 CMO 기업 삼성바이오로

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지난해 잇따른 수주 성과를 자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1조1648억 원을 달성, 창립 9년 만에 '1조 클럽'에 입성했다.

2020년 수주 성과는 17억800만 달러로 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회사는 GSK와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굵직한 다국적제약사들을 고객사로 추가했다. 이 가운데 일라이릴리와 맺은 계약은 코로나19 중화항체치료제 '밤라니비맵' 대량 공급 건이다. 밤라니비맵은 3공장에서 생산돼 3공장의 가동률을 더욱 끌어올리게 된다. 미국 정부가 초기 물량을 계약한 밤라니비맵은 30만 명분(3억7500만 달러 규모)이다.

바이오의약품 단일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은 2023년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62만 t의 생산기지를 보유, 전 세계 CMO 시장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공장의 조기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 기업들의 개발 초기 약품에 대해 8건의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조기 수주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더해 항체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세포치료제와 백신 위탁생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생산 규모,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을 동시에 늘려 글로벌 종합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기지로 '활짝' = 백신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CMO 계약과 노바백스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에 이어,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이전이 유력하다.

정부는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신의 항원 개발 기술을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이전해 안동의 백신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공급하는 내용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000만 명분도 2월 중 국내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백신 생산 능력을 최대 5

억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최소 3조 원대로 예측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몸값은 코로나19 백신 CMO 사업의 성과에 따라 추가 상승도 가능할 전망이다.

SK(주)는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면서 삼성을 맹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CMO 통합법인 SK팜테코를 통해서다. SK팜테코는 한국의 SK바이오텍, 유럽의 SK바이오텍 아일랜드, 미국 앰팩(AMPAC)을 통합한 법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바이오 원료의약품 CMO 기업 이포스케시 인수도 추진하면서 합성의약품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MO 사업 통합은 2019년 5554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00억 원으로 예상될 만큼 고속 성장 중이다. SK(주)는 2025년까지 CMO 사업 가치를 10조 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지난달 일자리 33만개 줄었다

코로나·공공일자리 종료 여파 식품·음식업 23만명 가장 많아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 여파로 다시 3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3차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식품·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사정이 더욱 악화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3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4000명(-1.8%)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감소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4월(-36만5000명) 다음으로 큰 것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과 공공일자리 사업종료 등으로 인해서 작년 4-5월 수준으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은 좀처럼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식품·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식품·음식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22만6000명 줄었다.

또 다른 대면 업종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6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등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7개월째 7만 명대의 감소폭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26만7000명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온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악영향을 줬다. 그간 공공일자리 덕에 증가세가 지속됐던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달 감소세(-8000명)로 전환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내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85만8000개 일자리를 1분기에 제공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재검토”

종교단체등 감염 전국 확산 단계 조정 발표, 주말로 연기

광주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TCS국제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3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직장과 가족, 학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논의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명으로 국내발생 479명, 해외유입 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500명에 육박했다. 광주 IM선교회의 교육 시설인 TCS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53명으로 늘었다. 이미 교회 2곳과 어린이집

까지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됐다. 경기 평택에서는 직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연수구에서도 일가족과 지인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충북 충주·김제 육류가공업체에서도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애초 29일 발표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번 주말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 與 ‘4차 지원금’ 20兆 가닥... 재정당국 “선별 지원”

### 3월 지급 유력... 국가채무 비율 60% 뎀 300조 여유 손실보상 법제화, 소급적용 없이 영업익 기초로 산정

당정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대 최대인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당국은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급을 논의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이 막 집행되고 있고 무엇보다 일단 3차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상황에서 4차 지급은 향후 방역, 피해, 경기, 재원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려다가 제도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으로 전환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한 보상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을 투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재보선 시기와 맞물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3차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20조 원이라는 숫

자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00조 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날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정지출 여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914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60%면 1148조 원 규모다. 지난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더 써도 되는 돈’은 300조 원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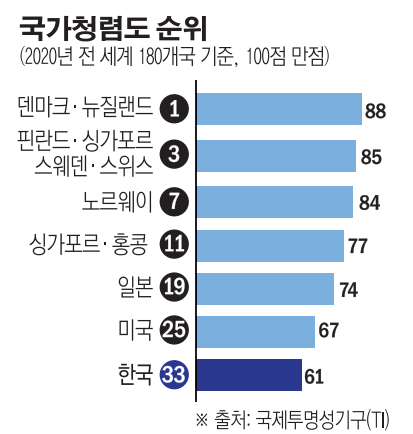
경제전문가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 위원은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예산 재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하는 데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원은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손실보상 법제화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영업이익을 기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목요일대회에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택배노조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28일 예고했다. 택배 노사가 분류 작업의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온 지 6일 만이다. 이날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3위

“공직사회 부패 개선 미흡  
기업, 준법·윤리경영 필요”  
2019년보다 6단계 상승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9위에서 6단계 상승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1점으로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에서, 2018년 45위, 2019년 39위로 3년 연속 6계단씩 상승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를 차지했다.

공통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88점)가 차지했다. 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85점)가 공동 3위로 뒤를 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외에 홍콩(77점·11위)과 일본(74점·19위)이 상위권에 올랐다. 북한은 공공민주공화국·아이티와 함께 18점을 받아 170위였다.

국가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청렴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쫓붙운동 이후 정부와 사회 전반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일상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공직사회 일선의 부패는 최근 크게 나아지지 못하거나 도리어 나빠진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정부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 역시 준법·윤리경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 부패방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가맹점주 60% “코로나 정책, 공급가격 인하해야”

로열티 경감·임대료 지원 뒤이어... 44% “불공정거래 경험”

###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맹점주들의 60.4%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가 코로나19 상황에

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로열티 인하(47.6%), 임대료 지원(43.8%) 등 순이었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 불공정거래 중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가맹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가맹점주의 가맹점 단계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0.8%였다. 단체 가입과 할

동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포인트(P)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택시 3만대 돌파

### 승차거부 없고 어디서든 호출

플랫폼과 결합한 브랜드 택시가 3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기준으로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총 3만539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8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브랜드 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만1417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대구(6275대), 경기(3269대), 울산(1891대) 순이다.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스마트폰을 통해 승차거부와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아 카시트,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들도 이용하고 있다. 택시업계역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효율적 차량 관제 및 배차,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더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 증가도 기대된다.

올해도 브랜드 택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다. 기존 6개 전국 단위 가맹사업자들의 사업구역, 운영 대수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리라소프트(토마토택시, 부산), 우버코리아(우버택시, 서울), 진모빌리티(IM택시, 서울 면허 준비 중) 등이 운영을 시작하거나 준비 중이다.

아울러 올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의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디지털·저탄소산업 맞춰 농업구조 바꾼다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올해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농업·농촌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축산에서는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 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벼농사는 온실가스 저감 농법을 개발해 보급하고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2015년부터 지역민을 중심으로 에너지자립 마을을 조성해온 충남 홍성 원천마을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원천마을이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량 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가축 질병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발생을 미리 차단한다.

올해 완공되는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http://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 이낙연 “국민연금 외 연기금도 투자에 ESG 반영”

## 당정청 협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내달 입법 이익공유 참여 시 인센티브 강화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인센티브 강화를 꼽았다. 이 대표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그것을 도입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공공 조달에서도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대기금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문 사무총장. 연합뉴스

ESG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 사회적경제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등 투

자기관은 투자대상기업을 결정할 때 기업의 ESG 평가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투자 수익도 높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 전체의 ESG 공시를 2030년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기금의 ESG 투자 확대에 법개정이 필요 없다

며 즉각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공공 조달은 조달법 개정이 필요해 다음 달 임시국회부터 논의될지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집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과 활로 역할에 나선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GDP(국내총생산) 개념을 넘어서는 성장과 발전 모색, ESG 경영, 개념소비와 가치소비, 삶의 질, 연대와 협력, 사람 중심, 풀뿌리 공동체의 중요성이 미래의 사회적경제 방향”이라며 “사회적 경제와 가치를 사회주의 경제 및 가치로 오역하는 태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문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에선 이호승 경제수석과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자리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정세균 “손실보상 위한 부가세 인상, 국민공감 없인 안돼”

##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공매도, 선개선 후시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엔 국민 공감이 필요하단 뜻을 재차 밝혔다. 상생기금 조성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세가 논의될 수 있지만 세율 조정, 신설에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며 “상생기금 만들지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선 “졸속으로 해선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충분한 검증·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 시기를 딱 못박

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 총리는 공매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선 개선을 하고 후 연장(공매도 시행)을 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OECD 회원국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금융위에서 그런(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 의사에 대해선 “말은 일이 매우 막중하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에도 성공해야 하고 경제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일 감당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 복귀 등 재차 질문에 대해 “제가 정치를 쪽 해온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

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겠다.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거나 목표의식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다”고 말하며 여운을 남겼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건강한 비판은 경청·수용하겠지만 정쟁화는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관련해 “(양사 최고 책임자와 만나) ‘국민에게 걱정을 이렇게 꺼져 드리면 되나.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與野 모두 까기’

## “박영선 ‘21개 자족도시’ 의문… 野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반대”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자들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먼저 같은 당 경쟁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놓은 ‘21개 자급자족 도시로 서울 분산’ 구상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추상적 그림이라 평가하기 어렵지만, 25개 구가 있는데 이와 무관하게 21곳으로 재조정해 도시 컨셉을 엮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여의도 사례를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은평에도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야권 후보들에 대한선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강남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 파급효과가 그간 컸기 때문에 투기가 활성화되거나 집값이 급등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전면적 재건축·재개발 허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야권 후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자 공세를 펼친 데 대해 “공공기관의 결론이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고, 민주당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야권 후보들이 선거에 이용하는 정략적 태도가 피해를 보호하고 양성평등 사회로 만들겠다는 진지함이 있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윤호 기자 uknow@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2월호 발매

COVERSTORY 몸속의 숨은 권력자 '호르몬'

PART1. 다시 젊어지고 싶은 당신 호르몬에 걸이 있다

PART2. 호르몬으로 사람 읽기

PART3. 처진 피부와 나이살 짐은 '청춘호르몬' 관리법

PART4.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

PART5. 사·취로 가는 사·취리 경건기

PART6. 사·취가 일어나야 할 호르몬 질환 10

전통 정원의 멋 77세 노인이 지은 줄기말한 '별서'

슬기로운 연금생활 내 연금 언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

한 씨 식당을 경영하는 69세 남성이자 한 씨 식당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 현금흐름을 고민하던 중 그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료 불입만 신경 써왔던 한 씨는 아쉽게도 조기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수령 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해왔다.

신라비가 만난 사랑

“차려 핏저도 살 속에서 살아간다” 권영태 교수

나만의 멋을 찾는 여정 모델 에이전시 대표 알렉스 김

미쳤다는 소리 순하게 들으려한 김천시 무형문화유산관 이진영 씨

시니어라이프 리더의 품격

직장을 다니는 시니어 대부분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의 역량이나 열정이 무기가 됐던 조직원 시절과 다르게 전체의 성과와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성패를 가른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직장생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니어 리더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까? 그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보려 한다.

구해줘 부동산

2021 부동산 트렌드

지나가는 '부동산'의 해라고 할 만큼 부동산 이슈가 사회를 뒤덮었다. 영끌, 파타바잉 등 부동산 관련 온갖 신조어와 이슈로 시끌벅적했다. 그렇다면 2021년 신축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新살날 품속도

코로나 Off 위한 랜선 On 연휴 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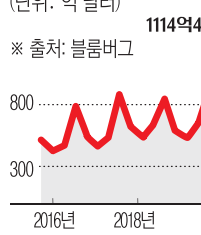
헬스+

갱년기 피부 변화의 원인, 에스트로겐 대체로 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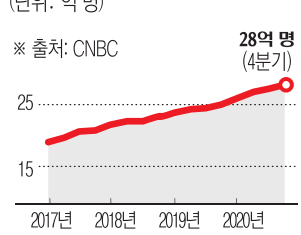


# ‘실적 축포’ 애플·페북·테슬라, 주가는 ‘숨고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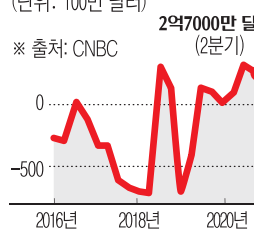
애플 분기별 매출



페이스북 분기별 사용자 수



테슬라 분기별 순이익



애플, 매출 첫 1000억 달러 돌파  
페북, 순익 53% 상승 112억 달러  
테슬라, 매출 28% ↑ 첫 연간흑자  
반독점·매출감소 우려에 추가하락

미국 IT 공룡 애플과 페이스북, 전자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고공비행했다. 이들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2021회계연도 1분기(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1% 증가한 1114억4000만 달러(약 124조1553억 원)라고 밝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자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33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29% 늘어난 288억 달러였다. 주당순이익(EPS)은 1.68달러로 시장 전망치 1.41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80억 달러라고 밝혔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4억 달러를 웃돌았다. 순이익은 53% 급증한 112억 달러였다.

특히 월간 사용자 수(MAU) 증가 추세가 눈에 띄었다.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페이스북 산하 앱의 전체 월간 사용자 수(MAU)는 33억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26억 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페이스북 산하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MAU는 28억 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26억 명을 넘었다.

테슬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7억2100만 달러로 2010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15억3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도된 차량 수는 49만9550대로 목표치였던 50만 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테슬라는 향후 전 세계 차량 인도가 연평균 50% 성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이날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애플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 실망감을 안겼다. 애플의 주가는 이날 0.77% 하락 마감했으며 시간 외 거래에서 3% 넘게 하락했다.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감소 우려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역시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페이스북은 시간 외 거래에서 2% 가까이 떨어졌다.

테슬라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107억4400만 달러, 순이익은 2억7000만 달러였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지만, 조정 EPS는 80센트로 레피니티브 집계 전문가 예상치인 1.03달러에 못 미쳤다.

최해림 기자 rog@



중국 '춘제 대이동' 시작  
중국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설·2월 12일)를 앞두고 28일 대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한 근로자가 보호복을 입고 베이징 기차역에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3월 8일까지인 총 17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보다 약 40% 줄어든 규모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파월 “경기하강 위험 여전” 낙관론에 찬물

FOMC 회의, 기준 금리동결 “자산매입 축소 시기 언급은 시기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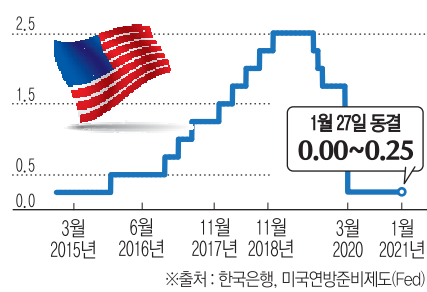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회복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행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의 유지를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제로 수준인 현 0.00~0.25%에서 동결하고, 국제 등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증폭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준 1.00~1.25%에서 1%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그 이후로 연준은 단 한 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준은 금리 상승 억제와 경기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회복 지원을 위한 1200억 달러(약 133조 원) 규모의 자산 매입도 현 규모와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완전 고용과 2%인 장기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까지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준은 현재 매달 8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부부 증권(MBS)을 매입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아직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매우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진단은 조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 지원에 힘입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여전히 크게 보고, 경기회복 낙관론에 경계심을 내비쳤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테이퍼링(채권매입 축소)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구전략은 위기 때 내놓은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뜻한다. 파월 의장은 2013년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긴축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우려,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 해리스 ‘빅3 장관’에 취임선서 받아 바이든 지원 속 ‘실세 부통령’ 인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다른 ‘넘버2’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취임선서를 직접 받았다. 선서를 주재한 해리스 부통령은 “축하합니다. 장관님”이라며 블링컨 장관의 내각 합류를 환영했다.

해리스는 전날 미국 첫 여성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 이틀 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취임선서를 주재했다. 내각 ‘빅3’로 불리는 재무·국방·국무장관의 취임선서를 모두 이끈 것이다.

통상 대통령이 장관 취임선서를 받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면에서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이 위상을 과시하는 배경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오스틴 장관의 취임선서를 받았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트위터 트윗을 끌어와 “첫 흑인-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이 첫 흑인 국방장관의 취임선서를 받았다. 역사적인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해리스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정부 최우선 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날 국립보건원(NIH)을 방문해 “100일 동안 1억 회분 접종을 달성하겠다”며 백신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취임선서를 받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슈퍼부양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미국 전역의 시장들과 전화 교섭을 벌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 대부분 입회했고 정보기관의 보안 브리핑에도 매일 참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가끔 브리핑에 동석했던 것과 대조된다.

해리스 부통령 지원 사격에는 78세로 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깔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국정 운영 경험이 부족한 해리스 부통령이 정부 능력을 쌓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증시 흔들리는 ‘로빈후더’ 백악관도 주목

개인투자자 집단 매수에 AMC·게임스톱 급등 ‘예의주시’

공매도 세력을 당황하게 했던 미국 개미군단이 이제 뉴욕을 넘어 글로벌 증시를 흔들 기세다. 이들의 집단 매수세에 백악관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영화관 체인 AMC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301% 폭등했고, 소매 유통업체 익스프레스는 214% 뛰었다. 이번 주 뉴욕증시의 화두였던 오프라인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역시 135% 올랐다.

이들의 상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주요 증시가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다우지수는 2.05%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대 급락을 기록했다. 언급한 종목 모두 개미군단이 타깃으로 삼고 집중 매수한 곳이다. ‘레딤’을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무기로 삼은 개미들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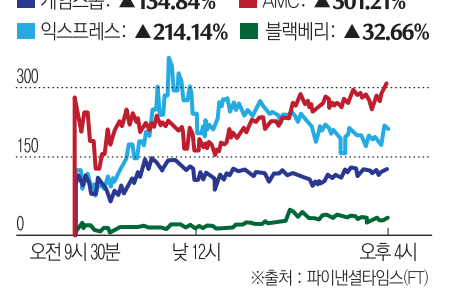
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제는 미국을 넘어 핀란드 통신업체 노키아와 독일 제약사 에보백, FT의 전 소유주인 영국 피어슨, 폴란드 게임 개발업체 CD프로젝트 등도 이들의 타깃이 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현 상황이 “마치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한 상대를 찾아 노리는 늑대와 같다”고 평했다.

개미들의 공세는 이날 뉴욕증시 급락의 주요인으로도 꼽힌다. 개미의 매수세를 버티지 못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공매도 세력이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 매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까닭이다.

상황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증권사들은 조처에 나섰다. 뱅크드와 찰스슈왑, TD아메리트레이드 등 이날 온라인 매매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증권사들은 장중 게임스톱과 AMC 등에 대한 거래 제

뉴욕증시 개인투자자 집단 매수로 하루 새 폭등한 4개 종목  
\* 1월 27일 현지시간 기준



한을 적용했다. TD아메리트레이드는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 한 대량 매매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서 느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쟈니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게임스톱과 AMC, 블랙베리 등의 주가 급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주식·옵션 시장 전반에서 벌어지는 변동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관 감독기관과 협력해 규제대상 기업과 금융중개사, 기타 시장참여자들의 활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 금융당국 '빚투' 또 경고장... 신용대출 더 조인다

금감원,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 불러 관리 강화 주문  
케이뱅크,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 0.1~0.2%p 인상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 1억→5000만원

금융당국의 '빚투(빚내서 투자)' 경고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하는 등 신용대출 억제 정책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최저금리 기준) 높였다. 그 결과 신용대출 최저 금리는 연 2.64%,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저 금리는 연 3.00%로 상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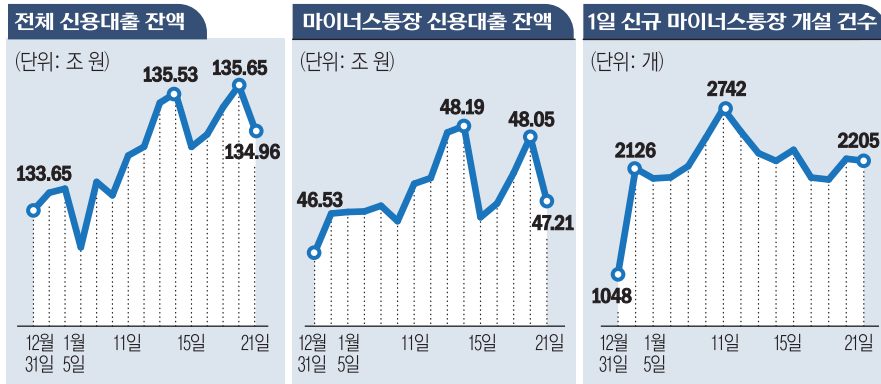
다만,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억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케이뱅크는 대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출금리 인상 대상 상품의 확대, 한도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 적용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까지 1년 넘게 전체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해 왔던 만큼 그동안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를 미뤄왔다. 이번에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연초 빚투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판단,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압박을 넣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6일 각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당시에는 당부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추이



※ 출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취합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실상 강제력을 동원한 강도 높은 압박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부행장들을 불러 신용대출 안정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의 압박이 거세지자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9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를 축소한다.

△우리 주거대출 직장인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우리 로얄 그룹 대출 △우리 금융인클럽 대출 △신혼부부 우대대출 등 6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더불어 △가계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우리 첫금융 신용대출 △우리 신세대플러스론 △참군인우대 대출(추가대출) 등 4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최고 한도가 8천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마

이너스통장 대출을 제외한 건별 신용대출은 기존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소득, 고신용자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우량) 상품에 적용 중인 상품별 감면 금리를 조정,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실수요자 및 서민이 주로 신청하는 하나원큐신용대출(일반)과 하나원큐신용대출(중금리)의 상품별 감면 금리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부터 '엘리트론 I·II', '쏟편한 직장인대출 SI·II' 등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4개 상품의 건별 최고 한도를 각각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000만 원씩 줄였다.

수협은행은 지난 22일부터 'Sh더드림 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플랫폼 금융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저리 대출

금융위, 디지털 혁신 추진 계획 발표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 비금융정보 활용한 신용평가 허용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

금융회사와의 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소상공인도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랫폼 금융은 기존 신용점수의 한계를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해당 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조치가 마련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1억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라가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신상·사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해당 법에는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조치가 마련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1억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라가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심상형(오른쪽) 우리은행 부행장과 김준근 KT그룹 전무가 업무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우리은행-KT, AI로 불완전판매 막는다

AI프로세스 개발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KT그룹과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프로세스 도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AI 기반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 혁신 △AI 기반 금융상품 안전판매 솔루션 도입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AI 학습 및 컨설팅 등 총 3개 분야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금융, 디지

털, AI 및 ICT 역량을 공유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신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이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KT그룹과 우리은행 간의 협약은 AI 기술력이 금융투자상품 안전판매로 확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료 최대 15% 낮춘다

금융위, 보험료 완화 추진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료가 기존보다 최대 15% 절감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앞으로 대리기사는 대리운전업체의 단체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오는 29일 오픈한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발생하고 있었다.

온라인용 개인보험 출시 계획  
실시간 가입 조회시스템 가동  
단체보험 중복가입 부담 해소

하지만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에서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는 여러 개의 단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사라진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대리기사의 경우 29일부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달 5일부터 대리료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타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도

2월~3월 중 전산연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법비 절감(모집수수료 등)을 통해 현행 단체보험(평균 연 110만 원 내외)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CM(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소를 위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하나의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봤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폴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단체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거나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수취해 단체보험을 강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객진산 기자 jinsan@

## "헬스케어 사업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영위기반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

정희수(사진)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이같이 밝히며 "생보사의 공공 보건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를 추진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절감, 상품·서비스의 선택권 확대, 유병자·고령자 대상 보험시장 확대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유관기관 및 산업계 연계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생보사

의 공공 보건데이터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생보업계 헬스케어사업 영위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헬스케어가 상품화를 통해 생보사에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의료행위 제한 등 엄격한 규제가 상존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회장은 "헬스케어 서비스의 상품화 등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하나금융그룹

Green + Digital

# 뉴딜 투자, 글로벌하게 하나로~ 담자!



K-뉴딜을 넘어 '글로벌 뉴딜' 투자로!

## 하나뉴딜글로벌테크랩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테마

**투자포인트** 「그린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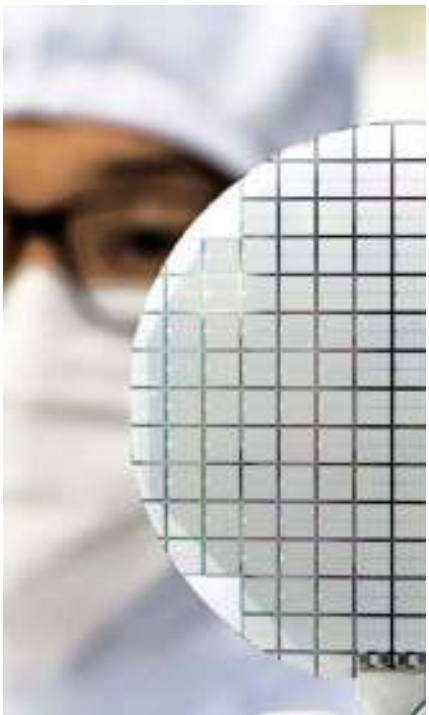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1.0%, 후취 연1.5% • 성과형 : 후취 연1.5%+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에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에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에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증개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증개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90호(2021.01.21~2022.01.20), cc브랜드210121-0151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 SK(주), 전기차 필수 부품 'SiC전력반도체' 진출



에스파워테크닉스 관계자가 칩 제조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들여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SK

**에스파워테크닉스 지분 34% 인수  
생산망·특허 갖춘 국내 유일 기업**

**신재생 발전·5G 통신 중계기 등  
4차산업 핵심 반도체 국산화 가속**

SK(주)가 전자기기·전기차·수소차 등의 필수 부품으로 시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첨단소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

SK(주)는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인 SiC 전력반도체 분야의 국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에스파워테크닉스에 2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33.6%를 인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설립된 에스파워테크닉스는 SiC 전력반도체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다. 10년 이상 SiC 전력반도체 개발 경력을 가진 연구개발(R&D) 전문가를 주축으로 설립됐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특허 23건을 확보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고온(高温)공정이 적용된 생산라인 등 SiC 전력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도 에스파워테크닉스가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다. 실리콘(Si)반도체와 갈륨비소(GaAs) 반도체에 이어 3세대 반도체로 평가되는 SiC전력반도체는 전력이 필요한 전기차, 수소차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친환경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 소재이자, 5G 통신 중계기 전원 등 디지털 기반의 4차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에스파워테크닉스는 포항에 100mm 및 150mm 혼합 생산 기준, 전기차 약 14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연산 최대 1만4400장 규

모의 SiC 전력반도체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이 필요한 전자제품, 전기차, 수소차, 5G 통신망 등의 전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필수 반도체다. 특히 SiC 전력반도체는 고온과 고전압의 극한 환경에서도 98% 이상의 전력변환효율을 유지하는 등 내구성과 안정성, 범용성을 고루 갖춘 차세대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실리콘(Si) 전력반도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최대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의 '모델3'에 SiC 전력반도체가 최초 양산 적용된 이후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기술 장벽이 높고 양산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전기차, 가전, 5G 업체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의 소수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공급 시장을 과점하고 있

어 SiC 전력반도체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SiC 전력반도체 시장은 첨단소재 분야 중에서도 기술 난이도와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고객 맞춤형 소량 생산 방식으로 형성된 시장 특성상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최적화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밑바탕 돼야 하고, 고온 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생산 노하우도 필수적이다.

유럽 시장조사기관 IHS마켓 및 윌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SiC 전력반도체 시장은 2020년 약 7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SK(주)는 첨단소재, 그린(Green), 바이오(Bio), 디지털(Digital) 등 4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SiC 전력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페플라스틱서 나프타 추출 SK중화, 美 전문업체 MOU

SK종합화학이 페플라스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열분해용 전문 생산 업체인 브라이트마크(Brightmark LLC)와 협력한다. 브라이트마크는 페플라스틱과 같은 폐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폐자원으로부터 재생 연료, 천연가스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SK종합화학은 나경수 사장과 브라이트마크 밥 파월 대표가 27일 페플라스틱 열분해용 국내 첫 상용화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열분해용 제조기술은 페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해 원료를 추출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납사(나프타)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다.

SK종합화학은 페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각자 보유한 페플라스틱 열분해 및 후처리 기술 노하우를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열분해 상용화 및 설비 투자를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 검토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브라이트마크는 이러한 제약사항을 뛰어넘어 연간 10만 톤의 페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연속식 열분해 설비를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GS칼텍스·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공병 재활용 협약

GS칼텍스는 27일 아모레퍼시픽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플라스틱 공병의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화장품 공병의 6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원료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에 여러 물질의 재료를 혼합해 성능, 품질의 향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앞으로 매년 아모레퍼시픽 플라스틱 공병 100톤(t)을 친환경 복합수지로 재활용하고, 이를 화장품 용기 등에 다시 적용한다. 복합수지는 화장품 용기,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등의 원재료로 쓰이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국내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생산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 적용 비율을 올해 20%에서 2025년에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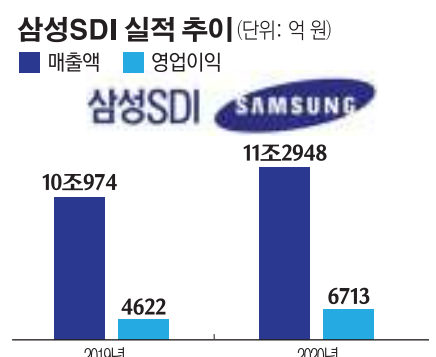
# 삼성SDI, 작년 매출 11조 신기록...차세대 배터리 출격 준비

**4Q 매출도 분기 기준 최대치  
車배터리 연간 흑자 전환 전망**

삼성SDI가 지난해 연간 매출 11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4분기 매출도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연간 영업이익은 6700억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45% 이상 크게 증가했다.

삼성SDI는 28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은 2020년 4분기와 연간 실적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6713억원으로 전년보다 45.26%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SDI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떼어내고 배터리를 주력으로 전환한다고 선포



한 2011년 이후 두번째로 많다.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은 2018년의 7150억원이었다. 연간 매출은 11조2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6%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462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123.47%나 늘었다. 4

분기 매출은 3조2514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분기 매출은 3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삼성SDI는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에 따른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전망했다. 주요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 강화 속도가 빠른 데다, 우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모빌리티 사업을 가속하면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회사는 유럽 프로젝트 거점인 헝가리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늘리고 차세대 배터리를 적기에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삼성SDI는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기차 관련 총당금 이슈로 인해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올해는 공급확대와 제품

합합 개선으로 연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세대 배터리인 제5세대(5세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SDI는 "제5세대 하이니켈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와 신공법을 처음 적용한 제품으로, 국내 라인에서 모든 검증을 마치고 신규 헝가리 라인에 동일하게 적용해 가동 초기에 수율 문제 없이 신규 라인을 조기에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세대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증가로 재료비가 기존 제품 대비 20% 절감될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물량 증가하고 프로젝트 다변화되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삼성 지원받아 '나노 결정체 생성 과정' 밝혔다

**삼성미래육성 박정원 교수 연구팀  
학술지 '사이언스'서 세계 첫 규명  
'반도체 소부장 원천 기술로 활용'**

향후 반도체 소재 등 부품 장비 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하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 박정원 교수(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연구위원)가 세계 최초로 핵생성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직접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한양대학교 예리카 캠퍼스 기계공학과 이원철 교수,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와 공동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원자핵이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결정상과 결정상 사이의 가역적 전이(Reversible disorder-order transitions in atomic crystal nucleation)' 제목의 논문은 학계의 오래된 난제였던 결정핵 생성 원리를 제시한 것을 인정받아 28일(미국 현지 시간)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원자가 모여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핵생성(nucleation)'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



세계 최초로 핵생성 과정을 원자 수준에서 관찰하는 데 성공한 박정원(왼쪽부터) 서울대 교수, 전성호 한양대 예리카 박사, 이원철 한양대 예리카 교수. 사진제공 삼성전자

무나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원자의 크기 또한 너무 작아 직접 관찰하기가 어려워 실험을 통한 증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원자 한 개의 두께만큼 얇은 그래핀 막 위에 금(金) 나노 결정을 합성해 세계 최고 성능의 초고속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핵생성 과정을 세계 최초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연구팀은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뭉친 덩어리 구조(비결정상)가 됐다가 정렬을 이루며 결정을 형성한 구조(결정상)도 되는 상태를 반복하는데, 결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점차 원자들이 정렬된 구조로 유지되면서 결정상의 상태가 되는 핵의 생성 과정을 밝혀냈다.

공동 연구팀은 물질의 구조가 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초기 핵형성 단계에서는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작아 비결정상과 결정상 사이를 쉽게 오고 갈 수 있어 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 이원철 교수는 "박막 증착 공정의 극히 초기 상태를 실험으로 재현했다"며 "이를 응용하면 향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연구 분야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송영록 기자 syr@

## OCI·포스코, 첨단소재 맞손 고순도 과산화수소 공장 착공

OCI와 포스코케미칼이 과산화수소 공장을 착공하고 첨단산업용 소재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OCI는 28일 전남 광양시 태인동 국가산업단지에서 포스코케미칼과 합작법인 피앤오케미칼(P&O Chemical)의 신설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새롭게 착공되는 공장은 2022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OCI 광양공장 인근 4만2000㎡ 규모의 부지에 설립된다. 연간 5만 톤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과산화수소 원료인 제철부산물인 포스코케미칼에서 공급한다. 과산화수소(H2O2)는 대표적인 산화제로서 소독약이나 표백제 등에 쓰이며, 특히 고순도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분야 생산 공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OCI는 2019년 4월 포스코케미칼과 제철부산물을 활용한 화학사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과 합작법인 설립 목적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업용 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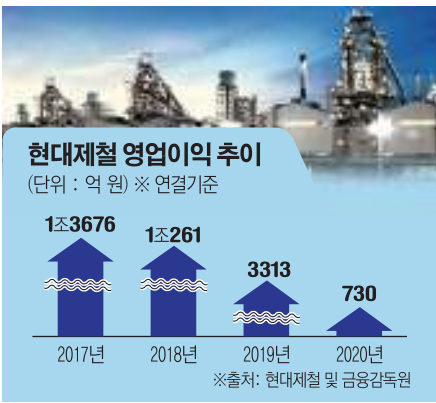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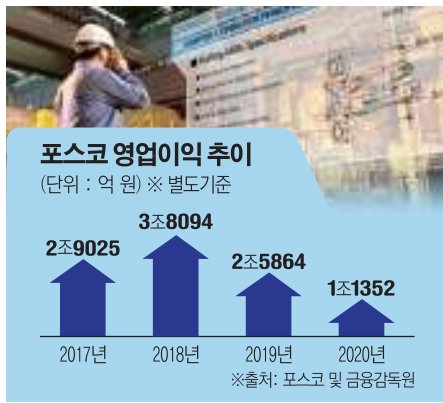
작년 7월에는 OCI가 49%, 포스코케미칼이 51%의 지분을 투자한 합작법인 피앤오케미칼이 공식 출범하며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실적 내리막길’ 표정 굳은 철강업계 “올해는 웃는다”

**포스코·현대제철 영업이익 급감**  
 코로나·원료가 상승 ‘악재’ 딛고  
 전방산업 회복·각국 재정투자에  
 올 글로벌 철강수요 18억 톤 예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산업이 악화일로를 걸는데다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예년보다 대폭 오른 데 따른 결과다. 올해에는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부진을 떨쳐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403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7.9%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57조 7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줄었다. 별도 기준 매출액 26조5099억 원, 영업이익 1조135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6.1% 축소됐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감소한 18조234억 원, 영업이익은 78.0% 감소한 7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수요산업 침체와 원료가 상승의 제품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마진 하락이라는 이중고로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겪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수요산업이 위축되면서 철강 수요도 타격을 입었다. 대표적으로 전체 철강제품의 약 30%가 소비되는 자동차 업계가 부진을 겪었다.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6% 하락한 7264만 대에 그쳤다.

상반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주요 해외법인이 ‘셧다운’을 겪은 점도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 이에 포스코는 2분기에 장사 이래 처음으로 별도기준 분기 적자를 내기도 했다.

연일 치솟았던 철광석 가격도 철강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철광석 가격은 공급 차질 여파로 한때 톤당 170달러를 돌파하는 등 예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 전망은 긍정적이다. 전방산업이 회복하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 각국의 재정투자에 힘입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철강협회(WSA)는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를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17억9510만 톤으로 예측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에 맞춰 생산·판매 활동이 재개되며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세도 이어지고 있다. 양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포스코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분기 1677억 원을 저점으로 반등해 3분기 6667억 원, 4분기 8634억 원으로 늘었다. 현대제철의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54억 원으로 3분기 334억 원보다 증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선

제적인 비상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했고 시황 급변에 대응한 유연 생산·판매 체제를 운영해 3분기부터 수익성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업황이 살아나면서 철강사들은 철강제품에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포스코, 현대제철은 내달부터 국내 열연 제품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목표를 59조4000억 원으로 설정하며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영대 기자 yeongdai@

## 현대위아 “2030년 매출 목표 12兆”

‘협력사 파트너십 데이’

현대위아가 ‘2030년 매출 12조 원’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 상생도 강화한다.

27일 현대위아는 주요 협력사 120곳과 ‘협력사 파트너십 데이’를 열고 경영 목표를 공유했다.

올해 파트너십 데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의 시스템을 통해 열렸다.

현대위아는 먼저 친환경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 모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미래 모빌리티 부품으로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열관리 시스템 모듈 중 일부인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2023년부터 양산에 들

어간다. 이 제품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탑재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차(FCEV)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사업에도 진출한다. 공기압축기는 수소로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수소전기차의 필수 부품으로, 2023년 양산이 목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활용해 협력사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도 적극 나선다. 현대위아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한화시스템, 도심항공 4각 협력체제 구축

한국공항공사·SK텔레콤·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

한화시스템이 UAM(도심항공교통) 분야별 핵심 주주들과 손잡고 효과적인 UAM 사업 모델과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8일 한화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국공항공사·SK텔레콤·한국교통연구원과 전일 서울 강서구 하늘길 한국공항공사 사옥에서 ‘UAM 사업 협력을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 참가사는 UAM 기체개발, UAM 이착륙 터미널인 버티포트(Vertiport) 인프라, 운항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에 이르는 ‘UAM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UAM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

2019년 UAM 사업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에어택시 기체인 ‘버터플라이(Butterfly)’를 개발 중이며, 항행·관제 부문의 ICT 솔루션도 개발한다.

버터플라이는 한화시스템의 독보적인 센서·레이더·항공전자 기술과 저소음·고효율의 최적 속도를 내는 틸트로터(Tilt Rotor) 기술이 적용된다. 100% 전기로 구동돼 친환경적이며, 활주부가 필요 없는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타입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틸트로터는 날개 역할을 하는 대형 로터 4개가 전방과 후방에 장착, 이륙할 때는 수직으로 사용되고 운항할 때는 방향을 바

꿔 수평으로 구동돼 안정적이며 적은 에너지로 더 빠른 운항이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도심 상공의 항행·관제 솔루션, 기존 교통체계 연동 시스템 등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축한다. 지난해 7월 한국공항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기체·항행교통 기술 및 버티포트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UAM 이착륙장(Vertiport)의 구축·운영과 UAM 교통 관리 분야를, SK텔레콤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미래 항공교통 통신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UAM 서비스 수요예측 및 대중수용성 등을 연구해 국내 UAM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협약 참가사들은 UAM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해 △버티포트 유형 연구 및 구축 △UAM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운항·감시 및 통합관제 모델 개발 △UAM 상공 통신망, 지상-항공연계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UAM 대중수요 예측·최적노선 설계·비용 도출 △UAM 제반기술 국내의 표준화 및 규격화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결집해 국내의 시장 선도를 위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UAM 팀코리아’의 산·학·연 대표 업체인 이들은 자체 실증 테스트 및 시나리오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참다한홍삼

# 실맛이 특별전

2021.1.22(금) - 2.22(월)

30/50/100/200만원 이상 구매시

# 최대 20%

**3+1**

다시, 남자 69,000원	다시, 여자 89,000원	홍삼대환 150,000원
-------------------	-------------------	------------------

**5+1**

마일드스틱 55,000원	클래식 55,000원	홍삼절편 55,000원	홍삼정스페셜 79,000원
------------------	----------------	-----------------	-------------------

\*실결제 3% 적립 \*N+1제품은 금액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T.1661-0308**  
www.chamdahan.com

참다한 홍삼은 전국 180개 직/가맹점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직원 대신 키오스크” 이통사도 ‘비대면 서비스’ 시대

KT, 무인매장 ‘KT셀프라운지’ 대구 동성로에 첫 오픈  
LG U+, 3월 광화문에 1호점... ‘U+키오스크’ 확대 계획  
SKT ‘T팩토리’ 내 무인매장... 공항·쇼핑몰 설치 검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인매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택트 요금제에 더해 영업 방식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해 유통망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KT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1호 하이브리드형 무인매장 ‘KT셀프라운지’를 열었다. 무인매장과 유인매장을 성격으로 주간에는 직원 상담과 비대면 체험을 모두 할 수 있고, 야간에는 무인매장으로만 운영된다. KT는 3월 중으로 2호점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열 예정이다.

KT셀프라운지에서 고객은 가장 먼저 ‘메인 키오스크’에서 안내를 받는다. 메인 키오스크는 △셀프ON키오스크 △스마트 모바일 체험대 △밴딩머신 △무인보관함 △AI체험대 5가지 무인매장 공간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 위치를 알려준다. 셀프ON

키오스크에서는 요금수납, 요금제변경 등 업무처리를 언택트로 할 수 있다.

스마트 모바일 체험대에서는 다양한 최신 단말을 체험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유심 셀프 개통이 아닌 공시지원금 등 일반 개통은 직원을 부른 뒤 진행해야 한다. 밴딩머신에서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휴대폰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다. 무인보관함은 고객의 개인물품을 보관하고, 주문한 스마트폰 찾기와 안심 충전과 살균 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 체험존에서는 KT의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체험하는 공간이 준비돼 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3월 1호 무인매장을 연다. 서울 광화문에 문을 여는 LG유플러스의 무인매장은 지난해 10월 키오스



LG유플러스 관계자가 ‘U+키오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크 중심의 매장으로 예정됐으나 계획이 수정되면서 개점이다소 지연됐다. 키오스크에 더해 무인상담 등 기능이 포함된 ‘종합형 무인매장’을 연다는 목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테리어 외 마감 공사 및 시장조사, 사용자 환경 경험 개

선 등을 종합적으로 기획 중이며 철저한 사전 작업 뒤 3월 내 오픈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무인매장 개점에 앞서 전국 주요 3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 ‘U+키오스크’를 도입해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

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영점뿐 아니라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GS25 등 매장에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자급제폰 또는 알뜰폰 유심을 사서 U+키오스크에서 유심 셀프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LG유플러스는 고객 반응 및 매장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연내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SKT)도 무인 매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SKT는 서울 홍대 거리에 복합체험공간 ‘T팩토리(T Factory)’를 선보이면서 T팩토리 내 무인매장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성준 SKT 유통본부장은 “우리 유통망이 커버할 수 없는 쇼핑몰, 공항 등에 무인매장을 여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SKT 관계자는 “T팩토리 내 무인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신규 가입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T팩토리 확대 계획도 있긴 하나 일단 기존 서비스에서 퀄리티를 높인 뒤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네이버, 3년 만에 영업이익 1兆 복귀

비대면 특수 ‘서치플랫폼’ 작년 4분기 매출 7702억  
‘커머스’ 3168억 ‘핀테크’ 2011억 ‘콘텐츠’ 1389억  
“플랫폼·콘텐츠 강화... 상반기 중 회사채 발행 검토”

네이버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회복했다. 네이버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이후 3년만이다. 네이버는 28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2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5126억 원으로 28.3%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753억 원으로 91.3%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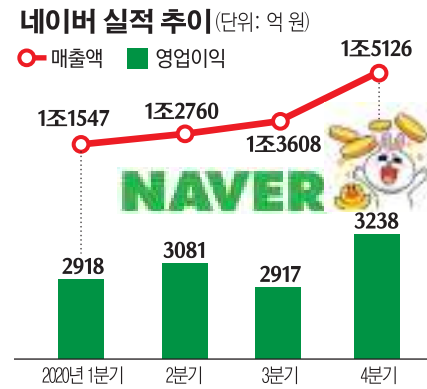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1조2153억 원, 매출액은 5조30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보다 영업이익은 5.2% 매출은 21.8% 증가한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4분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주목받으며 검색과 광고 등이 포함된 서치플랫폼 부문 매출이 7702억 원으로 실적을 견인했다. 서치플랫폼 부문 연 매출은 2조8031억 원으로 전체 매출 중 절반 가량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커머스 부문은 스타트제로수수료, 성장 단계별 마케팅 포인트 지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노력으로 31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커머스 부문 중 쇼핑 사업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네이버 측은 지난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1만개를 기록했으며, 월 거래액 1억 원 이상 스토어는 4000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부문은 네이버페이의 성장에 힘입어 2011억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통해 금융 이력 없는 신평일러 및 중견·중소기업(SME)들을 위한 핀테크를 본격화해 빠른 정산 서비스를 출시하며 SME들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 부문은 웹툰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13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올해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일 세계 최대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의 인수를 결정했다. 왓패드 인수를 통해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이용자 7200만 명에 왓패드 이용자 9000만 명을 더해 글로벌 1억6000만 명 가량의 이용자를



보유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전날에는 박히트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새로운 글로벌 팬커뮤니티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박히트 자회사인 ‘비엔엑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결합해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회사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모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중소 경기전망 두 달 만에 반등

2월 지수 69.3... 4.3P ↑

중소기업이 내다본 2월 경기전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9.3으로 전월 대비 4.3포인트 올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기대심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76.6으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비제조업은 65.6으로 전월대비 6.0포인트 올랐다. 건설업(65.6)은 전월대비 1.2포인트 내린 반면, 서비스업(65.6)은 전월대비 7.4포인트 상승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봐도 반등 분위기가 이어졌다. 내수판매(64.3→69.8), 수출(78.9→82.6), 영업이익(62.4→66.6), 자금사정(66.2→70.6) 전망이 전월에 비해 상승했고, 역계열 추세인 고용(100.1→97.2) 전망 또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요인으로는 내수부진(68.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건비 상승(43.0%), 업체간 과당경쟁(35.5%), 원자재 가격상승(22.6%)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다원 기자 leedw@

## 방통위, 코바코와 함께 中企 광고제작비 지원

46개사에 12억3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방송 광고 제작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 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가 2015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TV 광고 26개, 라디오광고 20개 등 46개 중소기업에 총 12억3000만 원의 광고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등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삼성SDS,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838억

연 매출 11兆... 2.8% 증가  
DX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올해 디지털 전환사업 방침

코로나19로 힘겨운 2020년을 보낸 삼성SDS가 올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SDS는 28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838억 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29.1%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도 3조46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6% 늘었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1조 174억 원, 영업이익은 8716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2.0% 감소했다.

안정태 삼성SDS 부사장은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가 해소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라며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구형준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장은 “올해 클라우드 시장은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가 개선,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와 구 수요가 맞물려 폭발하는 팬데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2021년 디지털 전환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어

도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뉴노멀이 자리잡을 것이라 전망이다.

구 사업부장은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해 가장 간편하고 쉬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비즈니스 관리는 비용 최적화 및 IT 자원 관리, 시스템 관리지는 보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개발자는 쉽고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자사의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흥해진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은 “삼성SDS의 동형암호화 기술과 50만 삼성 임직원들이 협업 톨로 활용하는

브리타워스를 통해 대외시장 공략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사의 모바일 관리 솔루션 EMM을 현장근무자 영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는 이를 추진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플랫폼 담당 조직을 신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DX 사업을 이끈다.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사 현황 진단과 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구 사업부장은 “고객사에서는 인프라부터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책임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올해는 금융권, 중견IT기업 중심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립 IT혁신사업부장은 “투자를 보류하고 연기했던 고객사 선제대응을 위해 생산설비나 IT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금년에는 예년 수준 이상의 회복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 “중고거래 매력 있네”... 백화점·편의점 잇따라 진출

국내 중고시장 10년간 4배 성장... 거래 활발·집객효과까지  
이마트24, '파라박스' 설치... AK플라자, 중고 명품 감정도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중고거래 서비스에 속속 뛰어 들고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며 중고거래가 대중화되는 트렌드에 맞는 데다 집객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28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10년 약 5조 원에서 현재 약 20조 원 규모로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마트24는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 업체 '파라바라'와 손잡고 주택가, 오피스가에 위치한 매장 18곳에 중고거래 머신(파라박스)을 도입해 테스트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파라바라는 중고 거래 시 직거래를 해야 하는 피로감, 실물 확인의 어려움, 사기 위험, 택배 부담 등의 단점을 보완한 오프라인 기반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매장에 설치된 파라박스에는 20개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 판매를 원하는 사람

은 파라바라 앱에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뒤, 다른 사용자로부터 하트를 3개 이상 획득해야 매장에 있는 파라박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해당 물품을 넣어둘 파라박스가 있는 매장을 선택하고, 비어있는 박스 번호를 선택해 상품을 넣어두면 판매가 시작된다.

이마트24는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고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먼저 18개 점포를 테스트 운영한 후 고객 반응을 보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백화점도 중고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AK플라자는 지난달 분당점에서 비대면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백화점에서 중고 명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으로 '파라바라', 중고 명품 온라인 감정 스타트업 '엑스클로젯'과 협업한 서비스다.



한 고객이 이마트24 매장에 설치된 파라박스에서 물건을 꺼내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24

특히 AK플라자는 중고 거래 자판기 설치 외에도 온라인 감정까지 도입했다. 엑스클로젯은 중고 명품 거래의 핵심인 명확한 감정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명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강남권 위주로 형성돼 있던 중고 명품 오프라인 시장에 비대면 기술력을 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내달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오픈하는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에는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전문매장인 'BGZT by 번개장터'가 입점한다.

앞서 롯데마트도 지난해 8월 광고점과 중계점, 양평점 등 3개점에 중고거래 자판기를 설치해 비대면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쇼핑몰도 뛰어 들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7층 리빙파크 식당가에 '파라바라' 자판기를 설치했고, 이어 AK&(앤)과 아이뉴프랑 판교점도 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명품 전문 온라인몰 트렌비도 중고 명품 리셀 서비스를 정식으로 론칭했다. 리셀 서비스는 통해 중고 명품 시세 확인부터 정가품 및 중고가 감정, 판매,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중고 거래 서비스에 나서는 것은 최근 들어 중고물품 거래가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는 지난해 1000만 명 돌파했고, 번개장터도 지난해 11월까지 거래액 1조1000억 원을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특히 코로나19에 집에 머무는 '집콕'의 시간이 늘었고, 자연스럽게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고 거래가 더는 낯설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로 등장했다”면서 “안전한 거래만 담보되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남주현 기자 jooh@



## 백화점의 틀 깬다... 여의도 '더현대 서울' 내달 오픈

대형 크루즈 같은 공간 디자인 '눈길'... 이름에도 '백화점' 없애

현대백화점이 서울 여의도에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깬 파격적인 공간 디자인과 혁신적인 매장 구성 등을 앞세워 미래지향적 백화점 '더현대 서울(The Hyundai Seoul)'을 선보인다. (사진)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서울지역 최대 규모의 메메드급 백화점인 '더현대 서울'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현대 서울'은 지하 7층~지상 8층 규모로, 영업면적만 8만 9100㎡(2만 7000평)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최대 백화점인 현대백화점 판교점(9만 2416㎡, 2만 8005평)과 비슷한 규모다.

'더현대 서울'은 점포명부터 파격적이다. 우선 1985년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오픈 때부터 사용해왔던 '백화점'이란 단어를 지웠다.

백화점이란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 고객과 인간적인 교감과 소통을 나누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이자, 일종의 모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시에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 시

대를 맞아 한류의 중심인 '글로벌 서울'을 찾게 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로 키우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무엇보다 '더현대 서울'은 공간 디자인과 매장 구성에 있어 혁신을 꾀했다.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쇼핑 재미'와 함께 오감(五感)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단 쇼핑 동선 구성을 차별화했다. 지상 1~5층은 매장 형태가 타원형의 순환동선 구조로, 마치 대형 크루즈(Cruise)를 떠올리게 디자인돼 있다. 고객들이 매장을 걷는 동선 너비는 최대 8m로 넓혔다. 유모차 8대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다른 백화점 점포들에 비해 2~3배가량 넓다.

공간 혁신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자연'이다. '더현대 서울'은 전층에서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장은 모두 유리로 제작됐고, 채광을 위해 천장부터 1층까지 건물 전체를 오픈시키는 건축 기법

(보이드, Void)을 활용한 공간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1층 매장에서도 햇살을 맞으며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1층에는 12m 높이의 인공 폭포와 자연 채광이 가능한 '워터폴 가든(740㎡, 224평)'도 조성돼 있어, 고객들이 폭포 소리를 직접 듣는 등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현대 서울' 5층과 6층에는 기존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던 '컬처 테마파크'도 선보여진다. 5층의 실내 녹색 공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여가생활 그리고 식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 '사운드 포레스트'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알트원(ALT.1)'을 비롯해 차세대 문화센터 'CH 1985(Culture House 1985)', 리테일 테크를 활용한 '무인 매장' 등이 대표 콘텐츠다. MZ세대를 겨냥한 미래형 쇼핑 콘텐츠인 '무인 매장'은 백화점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스마트스토어'로, 패션잡화, 생활용품,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숍 형태로 꾸며진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신세계 부회장>

## 정용진이 네이버 간 까닭은

온·오프 '유통공룡' 만남 주목... 동맹 땀 업계 지각변동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방문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와 동행한 정 부회장은 이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공동적으로 유통업을 하는 양사가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업계는 양사가 사실상 동맹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전날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빅히트 자회사인 비엔엑스, YG PLUS 등과 전략적 협업을 합의하는 가하면, 최근 CJ대한통운과 주식 맞교환을 하는 등 적극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네이버와 신세계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한 행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지난해 거래액이 2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상인 수는 38만 명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와 통한 간편 결제도 소비



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소다. SSG닷컴을 필두로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는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의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경험이 필요하다. 예컨대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상인과 당장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SSG닷컴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네이버와 비교하면 이른 단계인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SSG닷컴의 거래액은 약 2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에서도 신세계그룹과의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네이버는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특성상 소싱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은 물론 호텔에 이어 야구단까지 보유하게 된 신세계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온 오프라인 유통 서비스업 인프라를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의 협업이 현실화된다면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가 또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을 필두로 설욕을 다짐하고 있고, 쿠팡은 기업공개, 11분기는 미국 아마존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미래형 편의점 '테크 프렌들리 CU' 송도에 첫 선

CU가 '미래형 편의점'을 현실화했다. BGF리테일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테크 프렌들리(Tech Friendly) CU' 1호점인 CU삼성바이오패시지점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테크 프렌들리 CU'는 국내 리테일 시장에 최적화된 첨단 기술을 적용해 고객 친화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편의점을 지향한다.

BGF리테일은 테크 프렌들리 CU의 슬

로건 'No counter, No wait, Just shopping'에 맞춰 점포 입장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했다. BGF리테일은 2019년 7월부터 첨단 무인 리테일 기술이 도입된 시범 매장을 통해 기존 스마트 편의점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한 상용화 모델을 만들었다.

테크 프렌들리 CU의 상용화 비결은 BGF리테일이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POS 시스템'이 꼽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묵힐수록 진국” 5년 ‘장수펀드’ 평균 수익률 55%

레버리지·삼성그룹주 100% 넘어  
우량기업 장기투자 수익률 쏠쏠  
ETF·농산물은 부진 옥석 가려야

테마	펀드수	설정액	연초 이후 수익률	1년	2년	3년	5년
레버리지	66개	2조8823억 원	10.81%	80.48%	91.63%	21.96%	165.94%
IT펀드	38개	2조3583억 원	8.60%	44.02%	84.66%	65.29%	191.34%
삼성그룹펀드	25개	1조4382억 원	8.18%	39.09%	55.19%	46.17%	118.19%
원자재(주식)	15개	7363억 원	3.15%	17%	37.23%	12.84%	100.60%

기업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송바른 씨(30·가명). 6년 전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와 어린 시절부터 적금 등을 통해 모아둔 5000만 원을 한 펀드에 모두 투자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밝힌 기업의 내재가치를 바탕으로 장기투자한다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대비 다소 높은 수익률 정도 기대하며 결혼 비용 마련 등을 목적으로 투자한 펀드는 현재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업체 종사자 이섫별 씨(32·가명)는 ‘가치투자’나 ‘모멘텀 투자’라는 말을 모른다. “장맛은 묵힐수록 좋다”는 말처럼 좋은 기업에 투자해 오래 묵히는 게 그의 전략이었다. 매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들여다볼 처지도 아녘다. 그는 “고심 끝에 삼성그룹주와 정보기술(IT) 그룹주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면서 10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현재 이 씨 펀드의 자산규모는 투자원금의 두 배가 넘었다.

송 씨와 이 씨가 투자한 펀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과 IT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들은 설정 첫날 가입해 5년 이상 보유 중인 극소수의 장기투자자들이다.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주펀드와 IT펀드, 원자재펀드(주식), 레버리지펀드의 5년 장기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익률도 삼성그룹주펀드 8.18%, IT펀드 8.60%, 레버리지 10.81%, 원자재(주식) 3.15%로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다.

전체 44개 주요 테마펀드의 5년 평균 수익률도 54.94%에 달했다. 2년 33.57, 3년 16.64%보다 높다.

하지만 5년 장수펀드라고 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44개 테마펀드 중 ETF(주식)와 농산물펀드는 각각 -20.18%, -2.02%로 부진하다.

장수펀드의 수익률이 뛰어난 건 이른바 ‘대표선수 효과’도 있다. 운용사가 간판 펀드 수익률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펀드 계좌에 낸 돈이 늘어남에 따라 원금 손실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적립식 펀드 열풍과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증시 대폭락, 중국 펀드의 몰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트라우마도 여전하다. 장기 투자가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판매사의 달콤한 광고를 더 이상 맹신하지 않을 만큼 급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희비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불안은 펀드런으로 이어졌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연초 후 1조 3410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반면 중국 금융정보업체인 윈도에 따르면, 새해 첫 주인 1월 4-8일에만 29개 펀드가 출시됐다. 이 중 8개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자금이 몰려와 하루 만에 매진됐고, 14개 상품도 한도가 금방 꽉 차 판매가 조기 마감됐다. 중국 증권시보는 올해 1월을 신규 펀드 출시가 붐이 터지듯 하

는 ‘슈퍼 먼스(Super Month)’라고 표현했다. 일본에선 순자산 총액이 9조3000억 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일본 최대 운용사인 ‘에셋 매니저먼트 ONE’이 내놓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하이퀄리티 성장주식펀드’이다.

하지만 예·적금 0% 금리 시대가 된 요즘,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로 펀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다. 불안하지만 필요가 대버린 펀드 장기 투자. 장기 운용된 펀드 성과 위주로 꼼꼼히 살펴본다면 현명한 투자로 안정적인 노후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을 가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증시 관련 뉴스 중 하루 이들의 증시 상황 관련 내용만 놓고 보면 약재는 더 비관적으로, 호재는 더 장밋빛으로 느껴지기 쉽다”면서 “주식 시장이나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두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나름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eoml@

## 결산시즌 코스닥 관리종목 ‘상폐 주의보’

관리종목 중 13곳 3분기 적자  
4분기 성적 따라 늘어날 수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코스닥 한계기업에 관리종목 주의보가 떴다. 5년 연속 영업손실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코로나 19사태 등을 살피 때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걸리는 기업이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02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후보군을 의미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이 지나도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순서를 밟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에 엄격한 관리종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년 연속 영업적자(별도 재무제표 기준)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적자를 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4년 연속 개별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상태인 곳은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제이웨이 △에스앤더블류 △이엠네트웍스 △스카이문스케크놀로지 △유테크 △에스디시스템 △한국정밀기계 △아레스 △MP그룹 △력속 △테라셀 등 13개사이다.

파나진, 국순당, 내츨엔도텍, 픽셀플러스, 솔고바이오, 알톤스포츠, 액션스퀘어, 유아이드 등 8개사는 3분기 누적기준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하면 4분기 성적에 따라 상장폐지 후보에 오르는 기업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 2017년부터 총 24개사가 해당 사유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통상 지난해 3분기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4분기 자본금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작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계속 발생한 기업은 △조이맥스 △마이더스AI 등 2개사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테크, 테라셀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두 사유가 중복됐으며,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일부 회사는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매출액 30억원 미만 △반기 감사·검토 보고서 비적정 의견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내 미제출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기 때는 연간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사유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관련 공시, 특히 손익구조 변동이나 회사 내부, 결산 감사보고 공시 등을 통해 위험요소는 없는지 잘 점검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아 기자 ljh@  
김하늬 기자 honey@

## 한국투자신탁운용, K-뉴딜·테크·ESG펀드 동시 출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고객의 수요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K-뉴딜, 테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국내 주식형 펀드 3종을 동시에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장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고객들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시장관이 명확해졌고, 이에 따른 목표가 구체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펀드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어필해야 하므로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만들어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뉴딜 펀드는 기존 한국투자마이스터펀드(1999년 설정)를 리뉴얼해 출시했다. 우선 K-뉴딜펀드는 승자독식 기업에 압축 투자한다는 게 운용철학이다. 뉴딜지수 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8일 ‘국내주식형펀드 3종 리뉴얼 출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 70%를 구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30%는 마켓 테마(Market Theme)를 반영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김대식 펀드매니저는 “지수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에너지 확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수혜가 예상되는 시스템통합(SI)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크펀드는 메모리·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AI·5G·2차전자·전장 등 고성장 영역에 집중투자한다. 이들 분야는 테크(Tech) 섹터 안에서도 최근 5개년간, 향후 5개년간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한투운용 측은 내다봤다. 특히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약진을 예상했다.

ESG펀드는 ‘MSCI Korea IMI ESG Screened Capped Index’를 벤치마크(BM)하는 동시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책임투자방법론과 종목선택틀을 병용하는 ESG 통합전략을 추구한다.

손영지 기자 eoml@

## 자본시장연구 “공매도 재개, 시장 충격 제한적”

“정교한 안정화 방안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 충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교한 시장 안정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이날 ‘2021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연 온라인 세미나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공매도 금지 국가의 금지 기간 수익률(21.3%)과 해제 직후 1일 수익률(-1.9%), 해제 직후 5일 수익률(0.6%)은 공매도를 허용했던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같은 기간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대우 1000억 자사주 매입

미래에셋대우가 주주권의 보호를 위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미래에셋대우는 28일 약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취득 예정주식은 보통주 1050만 주로 유통주식 수의 약 2.1%에 해당한다.

그는 “다만 시장안정을 위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했던 필리핀거래소의 경우 재개장 일 주가가 13.3% 폭락했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면 금지 후 해제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보다 정교한 시장안정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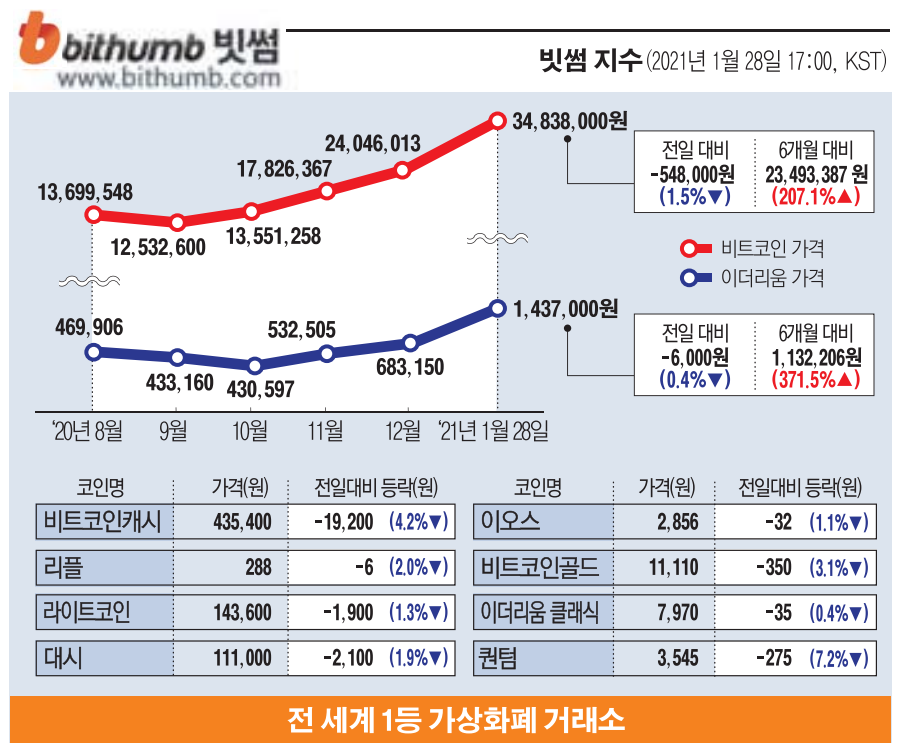
또한 그는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 실장은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거래 급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증대됐다”며 “과거와 달리 변동성이 큰 종목의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기간 가구당 소비 감소와 가처분소득 증가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투자 여력이 크게 확대됐으며 팬데믹 해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설경진 기자 skj7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공공주택 용지〉

# 나왔다 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수도권 택지 확보 전쟁

LH 작년 38곳 공급...계획보다 줄어 정비사업 규제에 공공택지 '황금알' 화성동탄2' 5만㎡에 305곳 뛰어들어 파주운정3지구 상위 경쟁률 싹쓸이

305대 1.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A57-2블록 공동주택 용지 추첨을 두고 벌어진 경쟁률이다. 아파트 662채(전용 60~85㎡)를 지을 수 있는 면적 5만1558㎡짜리 땅을 사기 위해 무려 305개 건설사가 뛰어 들었다.

같은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된 A49블록 공동주택 용지엔 321개 건설사가 추첨 경쟁을 벌였다. 총 486가구(전용 60㎡형 이하 270가구, 60~85㎡형 216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LH가 공급하는 수도권 아파트(공동주택) 용지가 '귀한 뎀' 대접을 받고 있다. 청약시장 광풍으로 수도권 새 아파트들이 역대급 인기를 누리면서 아파트 용지를 한 곳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건설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

**지난해 내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추첨 경쟁률 상위 10곳** ※출처: LH

지구명	블록	가구수	면적(㎡)	경쟁률
파주운정3	A49	486	3만1830	321:1
파주운정3	A21	448	2만4698	321:1
파주운정3	A46	400	2만4509	318:1
파주운정3	A48	460	2만1897	318:1
파주운정3	A18	502	3만2378	309:1
파주운정3	A44	430	2만9400	308:1
화성동탄2	A57-2	662	5만1558	305:1
이천중리	B1	791	4만9234	293:1
파주운정3	A38	498	3만5503	292:1
이천검단	AB19	920	4만2977	290:1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수도권 아파트(공동주택) 용지들이 수백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매각됐다. 올해 건설사들의 아파트 용지 확보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 역시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건설사들의 아파트 용지 확보전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LH가 수도권에서 일반매각(추첨 및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는 모두 38곳이다. 당초 44곳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급 시기 순연과 합필(여러 개로 나뉜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 등으로 계획보다는 공급 물량이 줄었다.

경쟁은 치열했다. 공급되는 땅마다 수백 개의 건설사가 때로 추첨에 나섰다. 상반기엔 △이천 검단(AB19) 290대 1 △이천 검단(AB20-1) 263대 1 △의왕 고천(B2) 276대 1 △평택 고덕(A15) 236대 1 △양주 옥정(A23) 212대 1 △파주 운정3(A7) 169대 1 △오산 세교2(A14) 163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팔려나갔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

졌다. 특히 운정신도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1월 운정신도시에서 나온 10개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 넘는 6곳이 30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38개 공동주택 용지 중 상위권 경쟁률 5곳 모두 운정신도시가 차지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용지 확보에 이토록 사활을 거는 건 공공택지 분양사업은 불확실성이 적어서다. 통상 LH가 토지 매입과

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용지를 공급하다 보니 분양 리스크가 낮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이 연이어 나올 만큼 수도권 분양시장에 청약 광풍이 몰아치는 것도 공공택지 몸값을 치솟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옥죄고 있는 것도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몰리게 하는 이유다.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은 '황금알 낳는 거위'나 진배없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이나 일반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공동주택 용지 공급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다 보니 중소 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공공택지로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 용지가 나올지는 내달 말께나 확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기조와 용지 등으로 올해도 작년 못지 않은 용지 확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속도내는 노량진뉴타운, 훨훨 나는 집값

6구역 관리처분인가 승인  
상반기에 이주...내년 착공  
전용 84㎡ 웃돈만 7억~8억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내 6구역 재개발 사업자가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지부진하던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서남권의 길목에 위치한 대규모 알짜 주택 사업지로, 재개발 이후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에 재개발 예정지 주택 몸값이 뛰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노량진뉴타운 6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았다. 노량진6구역(7만3300㎡)에는 지상 28층짜리 아파트 14개 동, 1499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은 GS건설과 SK건설이 맡는다. 조합 측은 "사업 진행이 다소 늦어졌던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이주를 시작해 내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입지가 워낙 좋은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높은 아파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량진뉴타운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

구역	예정 가구수	사업 단계	비고
1구역	2992	조합설립인가	
2구역	421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3구역	1012	조합설립인가	
4구역	844	사업시행인가	
5구역	727	조합설립인가	
6구역	1499	관리처분인가	상반기 이주 예정
7구역	614	사업시행인가	
8구역	1007	사업시행인가	

노량진뉴타운은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원 총 73만여㎡ 규모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8개 구역으로 쪼개져 개발 중이다. 한강 이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알짜 뉴타운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발 이후 공급될 물량도 9000가구 이상이다.

6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노량진뉴타운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벌써 고공행진 중이다. 현재 6구역 전용면적 84㎡형 입주권 매물은 권리가액이 12억~13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재 웃돈만 7억~8억 원가량 붙었다. 이마저도 매물을 찾기가 힘든 상

황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노량진동 N공인 관계자는 "6구역의 경우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매물을 구하는 문의도 많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 8구역 114㎡(전용면적) 입주권 매물은 권리가액이 7억50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가 17억 원 선이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프리미엄(웃돈)이 꽤 붙었는데도 지금 잡아야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으나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 거래는 뜸한 편"이라고 전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작년 집값 과열 중심엔 '외지인 투기수요'

10% 넘게 오른 17곳 중 15곳 거래 늘어  
현지 주민 '패니바이' 부추겨 집값 급등

지난해 아파트값이 10% 이상 급등한 지역 17곳 중 15곳은 외지인 거래가 늘어난 곳으로 조사됐다. 외지인이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면 매수심리를 자극받은 해당 지역민들이 덩달아 매수에 동참해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28일 한국부동산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시는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15곳의 외지인 거래 비중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계룡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거래 총 1106건 중 50.9%(556건)가 외지인 매입 거래로 조사됐다. 2019년(37.6%)과 비교하면 13.3%포인트(P) 올랐다. 분석 대상 17개 시 가운데 으뜸폭

이 가장 컸다. 계룡시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1.5배 늘고, 아파트 값은 11.24% 올랐다.

경기 안산시 역시 지난해 아파트 거래 1만1727건 중 53.5%(627건)가 외지인 거래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단원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직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다. 지난해 안산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13.45%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외지인 거래 비중은 2019년 47.0%에서 지난해 45.4%로 줄어 하남시(66.7%→56.5%) 함께 외지인 거래 비중이 줄어든 지역으로 꼽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부분의 집값 과열 현상은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와 맞물려 있다"며 "지난해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과열은 외지인이 발동을 걸고 실수요자인 현지 주민이 '패니바이'(공황 구매)으로 가세하면서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내달부터 신혼·생애 첫 특공 기회 확대

소득요건 완화·청약 2번 혜택...전매제한 위반 땐 10년간 자격 박탈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확대된다. 민영 일반은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 민영 일반은 130%에서 160%로 각각 확대된다.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점 시에는 추가 기회를 제공해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에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낮아진다.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상향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 비규제지역 '양평역 한라비발디' 내달 분양

지상 20층 1602가구 대단지

경기도 양평에 16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라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양평역 한라비발디(조감도)'를 다음 달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상 20층 16개 동짜리 2개 단지, 총 1602가구로 구성된다.

전세대 남향 중심의 배치로 채광과 조망 효과를 극대화했다. 양평군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는 물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도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

상이고,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당첨자 선정 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교통 환경도 좋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km)가 개통하면 자동차로 서울까



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국도 88호선 확장(퇴촌-양근대교 구간)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양평군립도서관-양평읍사무소-양평군청-양평시장-하나로마트-메가마트-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1.5km 이내에 있다. 양평중·양일중·양일고·양평고도 가까이 있다. 쾌적한 환경도 자랑거리다.

문선영 기자 moon@



# 유·초등 1·2학년, 3월부터 '매일 등교' 가능해진다

**교육부 2021년 학사일정**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예외 고3 이어 저학년도 우선등교 방침 원격수업 출결·평가 지침도 내다

3월 새학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유지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것은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 끝에 우선 등교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장기간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학습 격차와 함께 발달 격차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각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 학사 일정 정상화** ※ 출처: 교육부
- 개학: 3월 정상 시작
  - 수능: 11월 3주 목요일(11.18) 실시
-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교수업 확대**
- 유아,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등 우선 등교 추진
  - 유아,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 밀집도 원칙 적용 제외 가능
  -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 배치 (초·중·고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
  - 학생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학급에 기간제 교원 약 2000명 지원

교육부의 올해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의 대원칙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한 등교 확대다. 신학기는 예정대로 3월에 개학한다. 11월 셋째 주로 예정된 2022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도 연기 없이 시행된다.

우선 지역·학교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내에서 학사 운영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 저학년 전체를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할 때 실제 등교 인원이 굉장히 많다"며 "방역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2학년만 예외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전교생이 매일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됐다. 지난해에는 300명 내외의 학교만 소규모 학교로 인정했으나 올해는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과밀 학급이 아닌 경우로 확대됐다. 유지원은

기준대로 60명 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 현장에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 학급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 등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과 매일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우선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규칙적 학습과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최종 출결 확인 가능 시간은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격수업 유형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 확인을 통해 출결을 확인하며 동영상이나 대체학습의 경우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기록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제출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손경원 기자 son89@**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1심 징역 8개월 징역 2년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정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 훼손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허위 경력 자료는 진본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서류로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요구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삼례슈퍼' 누명 옥살이 '국가가 15억 배상' 판결 '당시 검사도 책임, 3.5억 분담'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3명 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 원이다.

임 씨 등 3명은 1990년 2월 30일 오전 4시께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국가와 당시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지금까지도 국가와 당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용 기자 deep@**

## 위헌 논란 빚은 김진욱 "차장에 여운국 제청" <공수처장>

"인사 중립·독립성 부분서 이의 없을 것"… 공수처법 합헌에도 '이첩요청권' 논란 지속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각각·각각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 조항에 따라 후보는 다수를 검토하더라도 제청은 한 명이 돼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랐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에서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을 보좌할 공수처 차장은 사실상 수사 실무를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처장에 이어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차장 후보로 지목되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뉴시스**

하면서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존립 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현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첩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면서 정식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다.

김 처장은 "이런 것도 수사 규칙을 마련함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 권한이 중첩되는 경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가진다는 취지 때문에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박범계 "檢 인사 급선무,尹 만날 것"

첫 일정 동부구치소 방문... 내달 인사 '법무·검찰 갈등' 첫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갈등으로 점철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박 장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8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뒤 윤 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인사를 논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처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인사 논의

를 위해 법무부로 호출했고 이는 관계 악화의 시발점이 됐다.

윤 총장은 관례상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가지고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반발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먼저 원하는 인사안을 제출 요구했으나 윤 총장은 '자기 사람들이 드러난다'고 거절해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논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윤 총장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 "밀실 논의를 허파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기존 관례를 따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임기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 추 전 장관이 허파했다던 '밀실 논의'로 회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조직과 공조를 언급한 만큼 추 전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을 다수 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왔다.

**박기영 기자 pgy@**



# “수술복 입고 타투 새겨... 끊임없는 새로움이 내 원동력”

## 의사 출신 타투리스트 조명신

의사와 타투리스트. 이 두 단어를 보고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수술실처럼 어두운 곳에서 일한다는 것 외에는 딱히 접점이 없어 보였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한쪽은 엘리트에 가깝고, 다른 쪽은 고독한 예술가 같다. 바둑으로 치면 흰 기운을 입은 의사는 백돌이고, 타투를 새기는 타투리스트는 흑돌처럼 보인다. 물론 의미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이미지의 대조는 확실하다.

이 거리감을 증명하듯 수술복을 입은 채 타투 시술을 하는 그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번째는 궁금했다. 메스를 들던 의사가 왜 수술복을 입고 몸에 타투를 새기는 걸까? 의사로서 남극에도 다녀오고,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며 매머드를 공부한 이유는 뭘까? 특이한 이력에 관한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꾸기 위해서 그를 만나 지나온 시간 속 사연을 들어봤다.

의사시절엔 문신 제거 시술  
장미 그림에 마음 뺏겨 입문  
타투 시작할 땐 다들 말렸죠

-성형외과 의사 시절 타투와 관련된 일을 했었나

당시 의사로서 타투 제거 시술을 많이 했다. 진짜 다양한 타투를 많이 지웠다. ‘착하게 살자’, ‘영숙아! 사랑해’와 같이 다소 유치한 문장부터 화려한 꽃이나 화살표가 꽂힌 하트 등을 지웠다. 일종의 낙서라고 보면 된다. 10대 때는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지만, 커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 했던 타투를 지우는 분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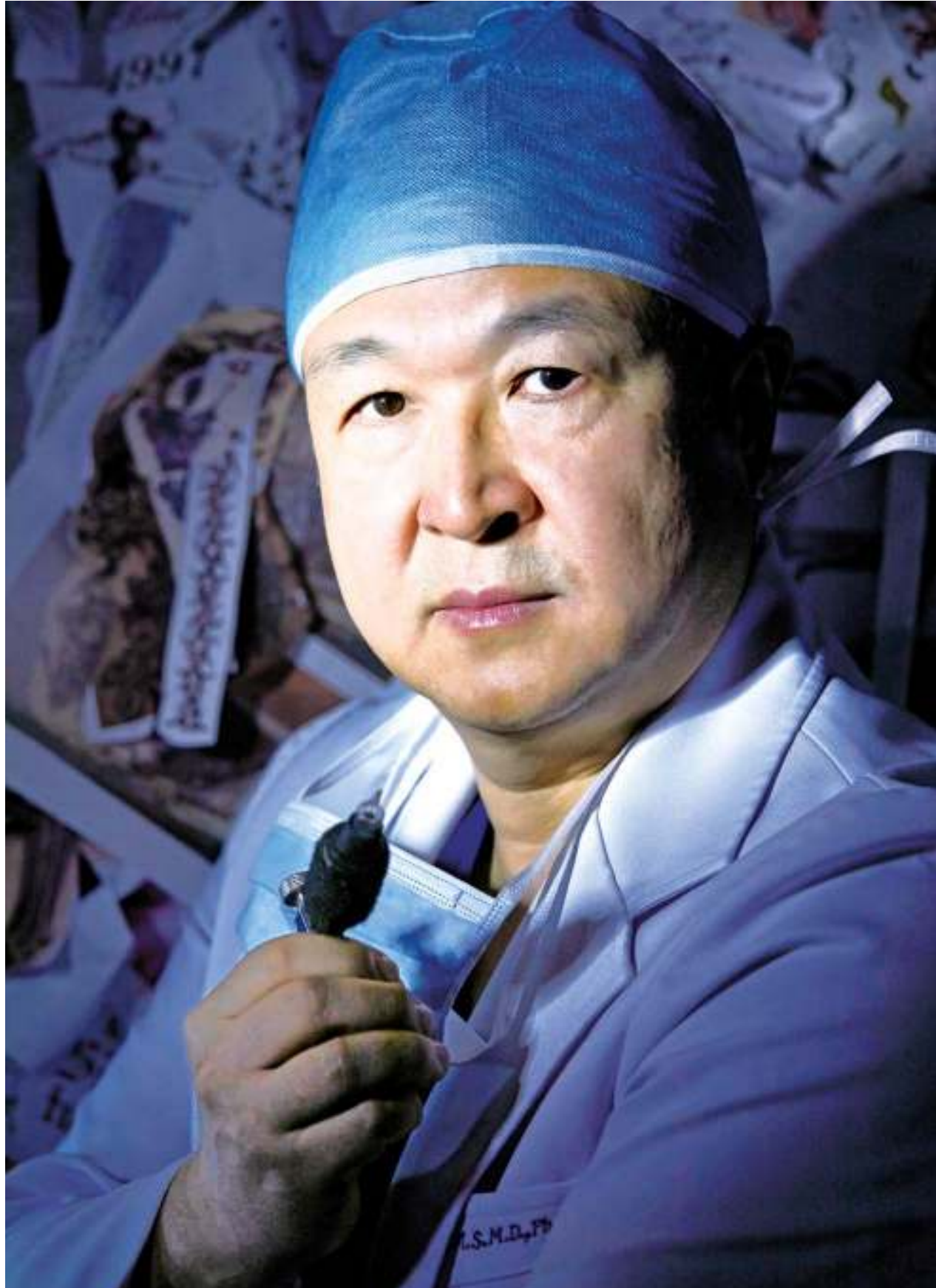
-타투리스트가 된 계기가 있나

어느 날 병원에 장미가 그려진 타투를 지우러 온 분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그려진 문양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장미를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마음에 무척 들어서 시술한 분을 찾아갔다. 그분은 송탄 미군 부대 앞에서 ‘키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경계해서, 제자가 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그분 덕분에 타투리스트로서 첫걸음을 잘 뒀다. 당시 타투는 법적으로 의료 행위였으나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없었다. 나는 성격상 남들이 다 하는 것에는 흥미가 없다. 의사 교육 과정에 타투가 있었던 면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타투 시술을 시작했고, 실력을 더 쌓기 위해 미국에 가서 배우기도 했다.

-메스를 들지 않는 의사, 아쉬움은 없나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의사가 된 건 순전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성격은 좋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위에 있는 형과 누나들이 다 재수,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다.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 집에 부담이 컸다. 알다시피 등록금부터 생활비, 월세 등등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나? 우리 집 형편으로 그게 빠듯했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의사를 선택했다. 학력고사 성적도 잘 나와서 의대에 충분히 갈 수 있었다. 다만 경제적 부담 없이 다니고 싶어서 여러 의대를 알아봤는데, 마침 한 대학에서 장학금과 함께 매달 용돈을 지원했다. 그렇게 들어간 의대였지만,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길

갈림길에 섰을 때 사람은 세 가지로 나뉜다. 남들이 지나간 길을 가는 사람,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서 있는 사람, 남들이 꺼리는 길을 기꺼이 가는 사람. 어느 것이 더 맞고 옳은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걸 ‘용기’라 읽고 ‘모험’이라 쓴다. 이번 호에서는 전형적인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타투리스트 조명신(56)을 만났다.



과 달라서 방향했다.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했다. 밑에 있는 직원도 와서 만류하고, 동료 의사도 반대하고, 타투리스트도 찾아와서 하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동료 의사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다. “왜 그런 걸 하나?”는 식이었다. 홈페이지에는 “이게 그림이냐? 학원이 라도 다녀라” 같은 댓글도 달렸다. 아무 맥락 없이 “밤길 조심하세요” 하며 험악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타투리스트는 직접 찾아와서 자중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활동하고 교류하면서 이제는 그들과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있다.

-주로 어떤 타투를 하나

정해진 틀은 없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다만 의사이다 보니 메디컬 타투에 신경 쓰고 있다. 의료 문신 혹은 재건 문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타투가 미(美)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타투는 복원에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백반증 환자의 경우 하얗게 된 부위를 타투를 이용해 보통의 살처럼 만들어준다. 의사로서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타투를 하면서 내 신분을 한 번도 망각한 적은 없다.

두려워도 뛰어드는 게 용기  
남극의사·매머드 연구까지  
앞으로도 모험하는 삶 살 것



-타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이 있나

성형외과를 하면서 3만 건 정도의 쌍꺼풀 시술을 했는데 얼굴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타투는 시술한 사람의 얼굴이 모두 기억난다. 특히 한 부자(父子)의 사연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유대가 없던 부자였는데, 타투가 하나의 매개체가 됐다. 아버지는 타투를 한다는 아들을 한사코 말리셨는데, 직접 병원에 와서 보시고 생각을 바꾸셨다. 나중에는 등판에 타투를 새기고 가셨다. 마지막 시술을 받고 가시면서 고맙다고 했다. 타투 때문에 평소 대화가 없던 아들과 말문을 열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맴돌았다.

-20년 동안 타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타투는 늘 새롭다. 코와 쌍꺼풀은 정형화된 방법으로 시술한다. 하지만 타투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사람마다 옷을 입는 방법이나, 귀걸이를 고르는 취향도 다르지 않나? 타투도 마찬가지다. 같은 독수리 도안이라도 취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늘 새로운 걸 시도했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였고, 재미도 있었다. 이런 새로움이 없었다면 지루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했을 것이다. 기본적인 소양을 알려준 건 키미이지만, 실제로 나

를 키운 건 고객이다.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 기자나 포토그래퍼도 그렇지 않나? 나도 똑같다. 타투도 같은 형식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담는 일이다. 끊임없는 새로움이 내 원동력이다.

-목표가 있다면

큰 목표는 없다. 그냥 타투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 지금 하는 걸 잘하고 싶다. 2년째 소방관에게 무료로 타투를 시술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경찰관과 응급실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소하지만 나의 무료 시술이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는

9·11 테러와 관련이 있다. 테러가 발생할 당시 태평양 상공을 지나던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때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그 후에 미국 여행 중 만난 분이 인상적이었다. 팔에 영어가 빼곡하게 타투로 새겨져 있었다. 알고 보니 9·11 테러로 희생당한 소방관들의 이름이었다. 미안과 존경의 표시로 말이다. 그분을 만난 이후 나도 나중에 소방관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의 결심을 이제야 실행하게 됐다.

-타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속할 수 없는 자유다. 하는 것도, 지우는 것도 본인의 자유다. 독수리를 새기고 싶으면 새기면 된다. 20대에 할지, 나이 들어서 할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자유로운 것이다.

복원 초점 메디컬 타투 집중  
소방관에게 무료로 시술도  
그분들의 노고 보답하는 길

바둑 용어 중에 미생(未生)이란 말이 있다. 몇 년 전 유행한 드라마의 제목과 같다. 미생은 가능성을 품은 순간을 뜻한다.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순간의 선택에 따라 삶의 경로가 달라진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헛갈린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다. 선택의 결과가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알고도 가까이 뛰어드는 것이다.

조명신 원장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비록 그가 선망하던 인디어나 존스처럼 고고학자는 되지 못했지만, 공중보건의 시절 남극 월동 의사에 도전했다. 의사로서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수술실에서 메스를 드는 대신 몸에 타투를 새겼다. 유년 시절 못다 이룬 꿈에 다가가기 위해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며 매머드를 탐구했다. 현재도 타투리스트로서 안주하지 않고, 메디컬 타투를 시술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바둑판 안에 갇힌 돌로 남기를 거부하고 늘 새로운 길을 찾으며 도전하고 있다.

그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안락한 안정이 아닌 구속할 수 없는 자유를 쫓았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철학적이지만 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에서 ‘안정’ 대신 ‘모험’으로 답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년에 소박하게 타투와 관련된 책을 쓰고 싶다는 조명신 원장의 또 다른 모험을 응원한다. 글/김민수 기자 minsugold@ 사진/오병문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광고심의필 : 2020-1540-000500



체함  
배함  
설사



# 넌 끝났어

뱃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같은 증상들을 제압한다~

동성제약 **정로환F**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 “약으로만 여기던 인삼, 이젠 채소처럼 먹어요”

### 장인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

#### 1~2년생 묘삼 4~6주 키워 잎·뿌리·줄기 통째 먹는 새싹삼 안정적 묘삼 생산·성분표준화 연구, 2019년 수출 길도 열려

“인삼은 비싼 6년근 홍삼 중심의 건강 기능성식품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약용채소로 인식되죠. 새싹삼이 인삼의 채소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인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삼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인삼은 10대 국가전략 생명연구자원일 뿐만 아니라 북한 특이, 개성에서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소중함 우리나라의 자원”이라며 “공무원이자 연구자로서 이같이 귀중한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게 항상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장 연구사는 경희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처음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다시 농진청으로 자리를 옮겨 인삼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특히 뿌리만을 사용하는 기존 인삼에서 벗어나 잎과 열매에 대한 활용 방안에 주목했다. 약용으로 한정된 인삼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싶었다. 이 연구는 인삼의 대중화, 채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새싹삼으로 이어

졌다. 새싹삼은 1~2년생 묘삼을 4~6주간 키워 잎, 뿌리, 줄기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약용채소로, 은은한 향과 씹새로운 맛이 특징이다. 새싹삼의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는 뿌리에는 2~4mg, 잎과 줄기에는 8~11mg이 들어 있어 통째로 먹으면 간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새싹삼은 저장된 묘삼의 싹을 틔워 잎, 줄기, 뿌리 전체를 약용채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잎의 기능성을 홍보해 인삼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 연구사는 “2014년 재배 기간을 줄인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새싹삼이 나오면 인삼이 비싸고 약으로만 사용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향후 3~4년근 친환경 인삼을 하우스에서 연속 생산하며 잎뿐만 아니라 열매를 가공 소재로 활용한다면 인삼 산업이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후 새싹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기존 방식으로는 묘삼(어린 인삼)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인삼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는 시



장인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전주 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포장에서 열린 농가 대상 현장 설명회에서 농민들에게 새싹삼 재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에 자칫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장 연구사는 안정적인 묘삼 생산과 성분 표준화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관리가 쉽도록 땅이 아닌 상토를 채운 곳에서 묘삼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했고, 고온에 취약한 인삼을 위해 개방형 이중하우스를 도입해 고온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에 3일 정도면 잎이 시드는 새싹삼의 황화현상을 막기 위해 기능성 필름을 활용한 전용 포장 용기도 고안했다.

이 같은 연구가 성과를 내면서 관련 농자재나 시스템 등 기술이전과 사업화도 꾸준히 이뤄졌다. 2019년에는 새싹삼의 수출코드가 신설되면서 수출길도 열렸다.

장 연구사는 “2013년 전무했던 인삼 공정육도 면적은 2020년 12.8ha로 늘었고, 2019년에는 100여 농가에서 생산해 약 25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게 됐다”며 “특히 하우스 우량묘삼 생산은 새싹삼뿐만 아니라 6년근 인삼 재배에도 활용되고 있어 인삼 산업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목표는 인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 그는 “지금껏 인삼의 채소화를 위해 새싹삼 연구가 기여했다면 가공과 신소재의 확산을 위해 3~4년근 인삼의 잎과 열매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한국바이오협회 7대 회장 취임

한국바이오협회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고한승 회장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생화학 학사와 노스웨스턴대 분자유전학 박사를 거친 후 삼성종합기술원 바이오&헬스팀장, 삼성전략기획실 신사업팀 전무를 지냈다.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을 거쳐 2015년부터 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사장은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이 연임한다. 부회장 18명, 이사 16명, 감사 2명의 임원도 전원 연임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1982년 설립된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1991년 설립된 한국바이오산업협회, 2000년 설립된 한국바이오벤처협회 3개 기관이 2008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335개 정회원사와 26개 단체회원 131명의 개인회원이 가입해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스타벅스코리아 17대 커피대사 김성은·전주이 바리스타 선발



스타벅스코리아의 바리스타를 대표할 최고의 커피전문가 2인이 탄생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김성은(사진 오른쪽) 바리스타와 전주이 바리스타를 올해 대한민국 스타벅스코리아 커피대사로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나라별로 가장 우수한 커피 지식과 열정을 보유한 대표적인 바리스타를 매해 커피대사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하고 해당 국가의 ‘스타벅스 커피대사’로 임명한다. 스타벅스 커피대사는 1년 동안 해당 국가의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커피 전문가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전파하며,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커피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도 주어진다.

김성은, 전주이 커피대사는 커피 지식 테스트, 커피를 주제로 한 전문 강연, 커피 감별 테스트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스타벅스의 지역 커피 전문가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글로벌 최초로 2명의 여성이 동시에 스타벅스 최고의 커피전문가로 선발되어 더욱 세밀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지 기자 heyji@

### 전기 부족 아프리카에 친환경 태양광 LG전자, 콩고서 ‘솔라카우’ 프로젝트



LG전자가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있는 고마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공급을 도와주는 ‘LG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라하(Furaha) 초등학교 학생들이 LG전자가 설치한 친환경 태양광 충전시스템 ‘솔라카우’를 이용해 충전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며 기뻐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사진제공 LG전자

### 이종업 변협 회장 당선인 “변호사 직역 확대할 것”

#### 변호사 수 감축 의지도 밝혀

이종업(사진 오른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8일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직역 확대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변협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영해 회원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할지 착실히 준비해 성심을 다해 회무를 수행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변호사 수 감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회견

에서 “많은 개업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조차 버거워하고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가 적절한 수로 감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역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기준에 변협이 실행했던 대책들에서 나아가 세부적으로 좀 더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법률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서 법률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개업 변호사들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확장”이라며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젊은 변호사와 중견 변호사들을 적정하게 인선에 집행부를 구성하고 전관 개업 제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밝혔다.

취임식은 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kady@

## 인사

◆특허청 ◇과장급 정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최대순 △산업디자인심사팀장 김병배 △특허심사제도과장 양재석 △약품화학심사과장 신원재 △특허심판원 심판장 고태욱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홍영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기획협력국장 정호석 △비서실장 김재현 △경제교육실장 황상필 △전산정보국장 서정민 △별관건축본부장 최낙균 △금융감사실장 윤상규 △금융결제국장 이종렬 △위생안전과장 김석원 △프락트코르트사무소장 박세령 △런던사무소장 김준환 △홍콩주재 최철호 △부산본부장 박찬호 △목포본부장 임종현 △제주본부장 변성식 △경기본부장 임철재 △경남본부장 전귀환 △강릉본부장 박성민 ◇1급 승진 및 이동 △기획협력국 최재호 △법규제도실장 민준규 △통화정책국 한경수 △국제협력국 이용천 △외자유원회 최재용 △경제연구원 김병기 △감사실 이윤성 △목포본부장 임종현 △인사경영국 소속 신현열 홍원석 ◇1급 이동 △경제교육실 노충식 △금융안정국 성병희 △국제국 한승철 △경제연구원 박광석 △인사경영국 소속 김원태 박철원 홍경식 정일동

◆한국거래소 ◇부서장 신규(재)보임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장 김주용 △ 해외사업부장 박상욱 △ 차세대시스템구축TF부장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지원부장 황선규 △코스닥시장본부 혁신성장지원부장 김종일 △ 코넥스시장부장 이순환 △파생상품시장본부 CCP리스크검증실장 오세일 △ 일반상품시장부장 이인표 △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박병우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실장 송윤희 △감사위원회 감사부장 이근영 ◇부서장 전보 △비서실장 정상호 △경역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이부연 △ IT전략부장 이장진 △ 인택사업부장 김용수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 정규일 △ 채권시장부장 김윤생 △ 증권상품시장부장 이상길 △ 공시부장 황우경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성장부장 박종식 △ 공시부장 강병국 △ 파생상품시장본부 주식파생시장부장 배홍수 △ 금융파생시장부장 이주환 △ 글로벌파생시장부장 이상우 △ 청산결제부장 박찬수 △ CCP리스크관리부장 고영태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이국철 △ 감리부장 이재훈 △ 경영지원본부 정보사업부장 김주용 △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사업부장 배홍수 △ 파생상품제도부장 이주환 △ 파생상품시장부장 이상우 △ TR사업부장 김기동

◆금융결제원 ◇2급(수석부부장) 승진 △플랫폼개발부장 이승원 △법무실장 김대중 △금융결제연구소 팀장 박재현 △총무부 팀장 오병일 △IT개발부 팀장 이영진 ◇3급(부부장) 승진 △경영기획부 팀장 허성균 △금융결제연구

소 팀장 김영진 △기업금융부 팀장 이은 △디지털금융부 팀장 최재용 △IT기획부 팀장 성재철 △금융인재센터 부부장 홍해정 △금융인재센터 부부장 권영휘 △IT기획부 부부장 강성주 △IT기획부 부부장 이상진 △e사업실 부부장 손용환 △카드인프라사업실 부부장 김강민 △정보보호부 부부장 원승재 △총무부소속 부부장 정진욱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승진 △홍보실장 박찬홍 △자산운용부장 이대웅 △유리사주부장 권영진 ◇부서장 전보 △기획부장 최동용 △경영관리부장 이영찬 △자본시장금융부장 박상목 △자금부장 김태환 △투자금융실장 노성규 △영역기획부장 임정우 △고객금융부장 김선봉 △강남지점장 박준호 △인사지원부장 김희문 △여신심사부장 이창환 △감사실장 조동희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박재형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감사실장 윤덕규 △공원환경처장 김진태 ◇본사 부장 △자원보전처 보전정책부장 이찬규 △시설처 공원시설부장 노윤경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안길선 △자원보전처 생태복원부장 김석범 △시설처 환경기술부장 이상철 △자원보전처 해양자원부장 정승준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박선규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강길영 △자원보전처 야생동물질병전담대응팀장 김창길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안호경 △감사실 감사기획부장 서정혜 ◇사무소장·원장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철수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김종식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진우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장 윤명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임철진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문광선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지호 △국립공원연구원 기획운영실장 강재구 △지리산생태탐방원장 안동순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이기석 △내장산생태탐방원장 오장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이종원 △연구위원 김희현 △연구위원 이학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영우 △부속병원장 임현석 △대학원장 명승권 △혁신전략실장 김열 △대의협력실장 유종우 △인재경영실장 김대현 △진료부원장 이종열

◆Sh수협은행 ◇전보 △부산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김종규 △심사부 팀장 신정훈

◆DGB금융그룹 ◇DGB금융지주 <1급 승격> △미래기획부장 강정훈 <3급 승격> △경영지원실 부부장 권영호 △CSR추진부 부부장 이경민 ◇DGB대우은행 <1급 승격> △경북도청 지점장 김경봉 △서대구지점장 박동동 △수성구 청지점장 서준진 △대구본부 부장 송용래 △부천지점장 이상림 △성서3단지영업부장 이승환

◆한국산도스 △사장 안희경

◆영남일보 △서울정치부장 임호 △경북본부장 최수경

## 부음

▲양순진 씨 별세, 김성용(영화에너지 대표)·유경(서울영상고 교사)·정은 씨 모친상, 임정욱(사업) 씨 장모상, 이숙영(성남수진중 교사) 씨 시모상 = 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29일 오후 1시, 02-3410-6920

▲서미숙 씨 별세, 임기석(파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개발팀장) 씨 부인상 = 27일, 파주보람장례식장 4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031-947-9444

▲정옥희(전 천안청주초등학교 교장) 씨 별세, 박서연(그린산부인과 부원장)·신영(서울아산병원 약제사) 씨 모친상, 조주환 씨 장모상 = 27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2-6986-4440

▲이석창 씨 별세, 이정훈(울산남구의회 의원)·준영(북부경찰서 경찰관) 씨 부친상 = 28일, 울산영락원 302호,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010-2840-1000



김수원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는 지금 다양한 복지기술의 발전 모델들을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비교하는 사회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2016년 발간된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술발전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술을 이용하여 곤란에 빠진 이들을 돕는 길은 무엇인가?"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은 복지 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을 위해 복지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돌봄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 이미 복지기술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알려진 것 같다. 돌봄을 받는 주요 대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대상의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사물인터넷) 사업', 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자체의 민관협력으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서비스' 등이다. 이것들은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술을 통해 위험이 감지되면 생활 지원사가 방문하거나 119가 출동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아이디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민관협력이나 기

술적 측면, 구체적 운영방식과 서비스의 질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는 센서 장비를 통한 안전 모니터링과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출발점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민간의 제품을 입찰 구매하고 위탁 운영을 맡기는 등 전형적인 관 주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 대상이 더 넓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신, 정책상의 제반 문제에 대한 환류와 변화가 느린 한계를 보여왔다. 정부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혹은 정부 실패가 사회혁신의 제약조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AI 스피커 돌봄서비스는 민관협력형, 상향식으로 발전한 사례다. 이미 개발된 기업의 AI스피커 기술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공유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에게 제공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에게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음성만으로도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사회적기업-지자체가 협력한 대가는 참

여한 모두에게 빠짐없이 풍족하게 돌아간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술플랫폼을 공유한 기업도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한 인식서비스에 참여한 대가도 컸다. 이용 정보가 AI 스피커폰의 기술 플랫폼인 모기업의 AI서비스단으로 전달되어, 시니어 음성인식 성능을 개선하고 속도를 알맞게 조절하며 지역의 방언을 인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령층에 적합한 음성 기술을 고도화하도록 환류되었다. 즉 기업은 이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확실한 테스트베드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자사의 유료 서비스 제품을 간접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이다. 민관협력형 복지기술 모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혁신적 확산의 단계를 맞이하였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 기술결합형 복지서비스로 확산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2020년 사회혁신의 대표 사례로 채택되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뉴딜'의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되었다. 전국 보건소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의 하나로 IoT 센서와 함께 AI 생활스피커가 보급된

다. 두 번째 확산 경로는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공헌형 공공서비스 운영 경험을 토대로, 구매력이 있는 일반 노인을 위한 소비자용(B2C) 서비스로 상품화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초기 모델은 하나의 거대한 복지기술 리빙랩으로 작동, 결과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확산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 경로는 향후 큰 시장이 될 '시니어 헬스케어'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는 지금 다양한 복지기술의 발전 모델들을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비교하는 사회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은 2016년 발간된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술발전을 통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술을 이용하여 곤란에 빠진 이들을 돕는 길은 무엇인가?" 더 많은 기업과 지자체, 시민들이 이러한 질문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실험과 혁신에 동참하기를,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사회가 함께 누리게 되길 기대해본다.

윤기영의 미래토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미래학 겸임교수

미래전략을 위한 '스리 호라이즌 프레임'

2021년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며, 기후온난화, 경제적 양극화, 세계질서의 다극화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다. 현대차와 애플, 삼성전자와 테슬라, 대만의 TSMC와 일본이 생존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합종연횡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추격전략과 적응전략이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 글로벌컨설팅업인 매킨지는 단·중·장기 전략 체계로 스리 호라이즌(Three Horizons) 프레임에 제안했다. 단·중·장기에 각각 기존 상품의 개선과 강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전략을 배치하고 7:2:1의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전환적 혁신을 병행하라(Dual Transformation)'의 저자인 앤소니 스콧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전략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킨지의 스리 호라이

즌 프레임과 일맥상통한다. 컬럼비아대학의 데이비드 라저스 교수와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스티브 블랭크는 혁신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과 정부가 성공의 함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현상유지에 안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주장하면서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정도에 머물러 있다. 과장하자면, 스리 호라이즌 프레임에서 7:2:1의 투자는 커녕 10:0:0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우리를 트렌드에 소몰이당하게 한다. 우리가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트렌드를 좇으며 우왕좌왕하게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리 호라이즌 프레임을 강화해야 한다. 스리 호라이즌은 미래학에 그 연원을 둔다. 모든 트렌드는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숙하고 사라진다. 수개월의 생명주기를 갖는 마이크로 트렌드

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가 지, 모든 트렌드는 생로병사한다. 트렌드의 유아기를 위크 시그널(Weak Signal),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혹은 변화의 씨앗(Seed of Change)이라고 한다. 유아기에서 성장하여 소년기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성장의 협곡인 캐즘(Chasm)을 건너지 못한 것을 이머전트 트렌드(Emergent Trend)라고 한다. 이머전트 트렌드가 성년기에 들어서야 트렌드가 된다. 트렌드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트렌드가 유효한 기간을 호라이즌 1, 현재 이머전트 트렌드가 트렌드가 되는 미래를 호라이즌 2, 현재 이머징 이슈가 트렌드가 되는 미래를 호라이즌 3라고 한다. 필자는 스리 호라이즌에 대응하는 전략을 각각 적응/대응전략, 혁신전략, 형성전략으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응/대응전략은 현재의 사회·기술·경제·생태·정치/제도의 트렌드에 적응하

고 대응하는 전략, 혁신전략은 이머전트 트렌드에 대비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혹은 정책을 혁신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중국 샤오미 회장인 레이쥔은 '돼지도 태풍의 길목에 서면 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의 전략을 말한다. 형성전략은 변화의 씨앗을 심거나 혹은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스캐닝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한국의 정부가 이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응시할 줄 알아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트렌드에 소몰이당하지 않으려면, 변화의 씨앗을 심고 그 결실을 거두고 있는 오늘의 구글과 내일의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에 소몰이당하지 않으려면, 스리 호라이즌의 시각 틀로 단·중·장기 전략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변화의 씨앗을 과감하게 뿌려야 하며, 과감한 비즈니스 실험과 정책실험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프라 윈프리 명언 "바라거나 믿는 바를 말할 때마다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미국의 여성 방송인. 사생아인 그녀는 25년간 낮 시간대 TV 토크쇼를 5000회 진행하며 시청률 1위를 고수한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로 유명하다. 아홉 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당하고 마약에 빠지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가 펴낸 인생 성공기는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오프라이즘'을 날기도 했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54~. ☆ 고사성어 / 술이부작(述而不作) 저술한 것이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로 저술에 대한 겸양을 나타낸다. 성품이 겸손한 공자가 자신의 저술을 두고 한 말이다. "나는 옛사람의 설을 저술했을 뿐 창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옛것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노맹(은나라의 현인)과 비교할 수 있다[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출전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

몇 해 전 유럽여행 중에 만난 가이드는 한국에서 그리운 것 중 하나가 '택배'라고 했다. 그곳에서는 식재료를 배송시키면 상한 상태로 도착하고,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서였다. 그는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택배로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우리 일상에서는 주문한 물건이 예고된 시간에 배송되는 게 당연하다. 당일 새벽 배송도 자리잡았다. 분실 염려도 거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은 데는 어제 든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는 택배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직접 만남이 어려워지

면서 이번 명절에는 택배로 정성을 표현하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산업은 급격히 성장했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0년 11억9800만 박스에서 2019년 27억8900만 박스로 10년 새 2.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30억 박스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자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숨졌다. 지난해 말 택배회사들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21일에는 노사정

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분류작업 업무의 택배사 책임 명시, 심야 배송 제한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은 이르지 못한 모양새다. 노사정 합의는 옛새 만에 사실상 무효가 됐다. 다시 한번 대화와 양보가 필요하다. 사측은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노조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소비자도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의 노동과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시사상식 / 킨포크(kinfolk)족 친척을 뜻하는 '킨포크'처럼 낮은 사람과 즉석 만남을 통해 음식을 나눠 먹고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2011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농부·디자이너·사진가·작가·화가 등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 요리하고 식사를 즐긴 이야기를 잡지로 엮어내 화제가 되며 유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30대 1인 가구가 늘며 유행하기 시작했다. ☆ 신조어 / 웃프다 '웃다'의 사동사 '웃기다'와 형용사 '슬프다'의 합성어다. ☆ 유머 / 요즘 트렌드 친구가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대 대체 자네 집 가장이 누군가?'라며 궁처가 친구에게 핀잔을 주었다. 궁처가 친구가 망설이지 않고 한 대답. "글세 말아야. 전에는 아내가 가장이었는데, 딸들이 다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주혜 산업부/winjh@

택배산업 성장의 명과 암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노선실, 자본시장부, IT중소기업부, 정치경제부, 금융부, 유통바이오부, 사회경제부, 부동산부, 디지털미디어부, 국제경제부, 산업부, 사진영상팀.



이슈&인물

규제와 혁신 사이 재계의 고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산업화 시대 낡은 법제 대대적 개혁 필요”

최근 기업들은 혁신 기술의 발전과 감염병 위기로 경영 환경 변화에 가속이 붙자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운신의 폭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반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규제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위기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만능주의 풍토에 맞선 기업 입장 대변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역할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이투데이가 27일 만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사회적 가치 함께 추구해야

우 부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다 격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부회장은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기업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계류 중인 법안은 향후 국회 논의 시 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국회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에 관해서도 우 부회장은 우려의 눈길을 보였다. 우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제·개정된 기업 관련 법률로 피로감이 큰데 또다시 갈등과 논란 소지가 있는 이익공유제 추진에 기업들이 혼란스럽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를 이해하나 올바른 방법을 통해야 효과 발휘가 가능하다”며 “손실보상제와 사회연대기금 조성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어 별개로 하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래 논의됐으나 기여도 계산 등 현실적 문제가 많고 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샌드박스, 법령정비 안되면 원점으로

우 부회장은 최악의 규제 환경 속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낡은 법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화시대에 맞춰진 낡은 법제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화된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만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우 부회장은 법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 부회장은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사업의 가능성과 가치를 일일이 이해하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점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우리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공정경제3법·중대재해처벌법…

경제법안 정치적 일방 처리 유감 이익공유제, 혼란·갈등만 초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고

규제입법영향평가제 도입해

제2 이병철·정주영 나올 여건을

탄소중립·ESG·디지털 전환

올해 산업계 최대 당면과제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대응해야

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비중이 정부입법보다 현저히 많은 것은 물론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에 선 별도의 영향 점검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입법 영향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로 의원입법 비중은 17대 국회에선 정부입법의 5.2배에 불과했으나, 20대 국회에선 19.7배에 달했다.

이러한 낡은 법제 개혁 노력을 통해 우 부회장은 “제2의 이병철, 정주영”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낡은 법제도, 기득권에 막힌 혁신 사업 모델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임시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 부회장은 “특례 승인과제가 약 400건에 이르지만 후속 법령의 정비 없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공 스토리’가 많이 쌓이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선진적 경영의 프랙티스(Practice)가 쌓이면 기업의 창의성도 증진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제조업 중심…탄소중립 속도 조절을

우 부회장은 규제 개혁과 함께 올해 산업의 최대 당면과제로 탄소 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디지털전환(DT)을 꼽았다.

우 부회장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탄소 중립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중립은 탄소를 100% 줄이는 것으로 이는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아

예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제조업을 하는 나라가 그렇게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젠 기업이 일단 살아야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상의가 기업들이 관련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테지만, 정부도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탄소 중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ESG 경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필수요소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주와 납품, 투자유치, 자금조달, 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ESG 경영은 이젠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대한상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54%)이 제품의 수출·납품 과정에서 글로벌 고객사에 ESG 관련 평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평가받는 기업 5곳 중 1곳(19.1%)은 이를 통과하지 못해 거래중지, 계약비율 축소 등 수출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기술 GVC 중심지로 떠오르게

우 부회장은 국내 산업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코로나19부터 미국 신정부 출범까지 향후 국내 경제와 산업 방향을 결정할 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산업의 변화 규모와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강력한 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GVC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했고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 될 예정”이라며 “또한, 중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며 앞으로 점차 중국의 GVC 비중은 줄어들고 아세안 국가들의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우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DT) 속도를 높여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GVC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DT 사례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기준이 없어 평가가 안돼 현재 위치를 모른다”며 상의 차원에서 DT를 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사설

코로나 이긴 삼성전자 초격차, 불안한 미래

삼성전자가 작년 236조8070억 원의 매출과 35조993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매출은 2019년보다 2.8% 소폭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이 29.6% 늘어난 괄목할 만한 실적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삼성전자는 28일 이 같은 2020년 잠정실적(연결기준)을 전자공시했다. 역시 반도체가 최대 효자였다. 반도체 매출이 72조8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18조8100억 원으로 34.2% 증가해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마트폰 등 IT모바일은 매출이 99조5900억 원으로 7% 줄었지만 이익은 23.7% 늘어난 11조4700억 원이었다. 소비자가전도 매출이 48조1700억 원으로 6%, 이익 3조5600억 원으로 41.8% 증가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출이 2% 감소한 30조5900억 원에 이익은 2조2400억 원으로 41.8% 늘었다.

작년 연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상반기 영업은 부진했으나, 하반기가 어 억눌렸던 수요 증가와 함께 비대면(非對面)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스마트폰, 가전 등 모든 제품군의 판매와 이익률이 크게 좋아진 덕분이다.

국내외 여건이 최악이었던 가운데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경제의 버팀목이었음을 입증한다. 지난해 수출과 소비가 감소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가라앉고 성장이 후퇴했다. 삼

성의 호실적이 이를 상당 부분 방어해 주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세계 경제여건 호전을 아직 기대하기는 이르고, 삼성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최대 상품인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장기호황)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톱3 기업인 미국 인텔과 대만 TSMC, 삼성의 작년 실적에서 TSMC 영업이익이 삼성을 앞질렀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집중된 TSMC의 기세가 무섭다. 삼성도 이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삼성이 돋보이는 실적을 올린 경쟁력의 원천은 ‘초격차’다. 끊임없는 도전과 과감한 투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메모리 시장을 주도해 왔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동 산업으로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있는 동력이다.

지금 삼성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다시 구속되면서 총수 부재 상태가 됐다. 반도체 초격차를 이끈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의 의사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작년 38조5000억 원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했다. 2019년보다 43%나 늘어난 수치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삼성이 다시 발목잡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과 투자에 실기할 우려만 커지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현실이다.

영화로 보는 세상

무사도 먹고살아야... ‘황혼의 사무라이’

넷플릭스에서 뭘 볼까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뭘가 있어 보이는 제목에 끌려 ‘황혼의 사무라이’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게 웬걸? 화려한 검술과 번뜩이는 무예로 무거운 일상을 단숨에 업 시켜 주길 기대했는데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 걱정을 하는 사무라이라니...

때는 일본 막부 시대의 막바지, 18세기 말엽이다. 세이베이(사나다 히로유키)는 ‘생계형’ 사무



라이이다. 아내를 병으로 잃고 어린 두 딸과 병든 노모를 건사하며 조그만 마을의 창고지기로 근근이 살고 있다. 해가 지면 동료들이 술 한잔하자고

꼬드기지만 곧장 집으로 향한다고 해서 ‘황혼의 사무라이’라 불린다. 그런데 이 애잔한 사무라이에겐 말 못 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영화 중반쯤 가면 이야기는 정통 무협지의 기본적인 흐름과 결을 같이한다. 세이베이에겐 오랜 시절 마음에 담아둔 여인이 있다. 절친의 여동생 토모에다. 그녀는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던 터였다. 토모에의 전 남편과 시비가 붙게 되고 상대는 검날을 세워 달려들지만 세이베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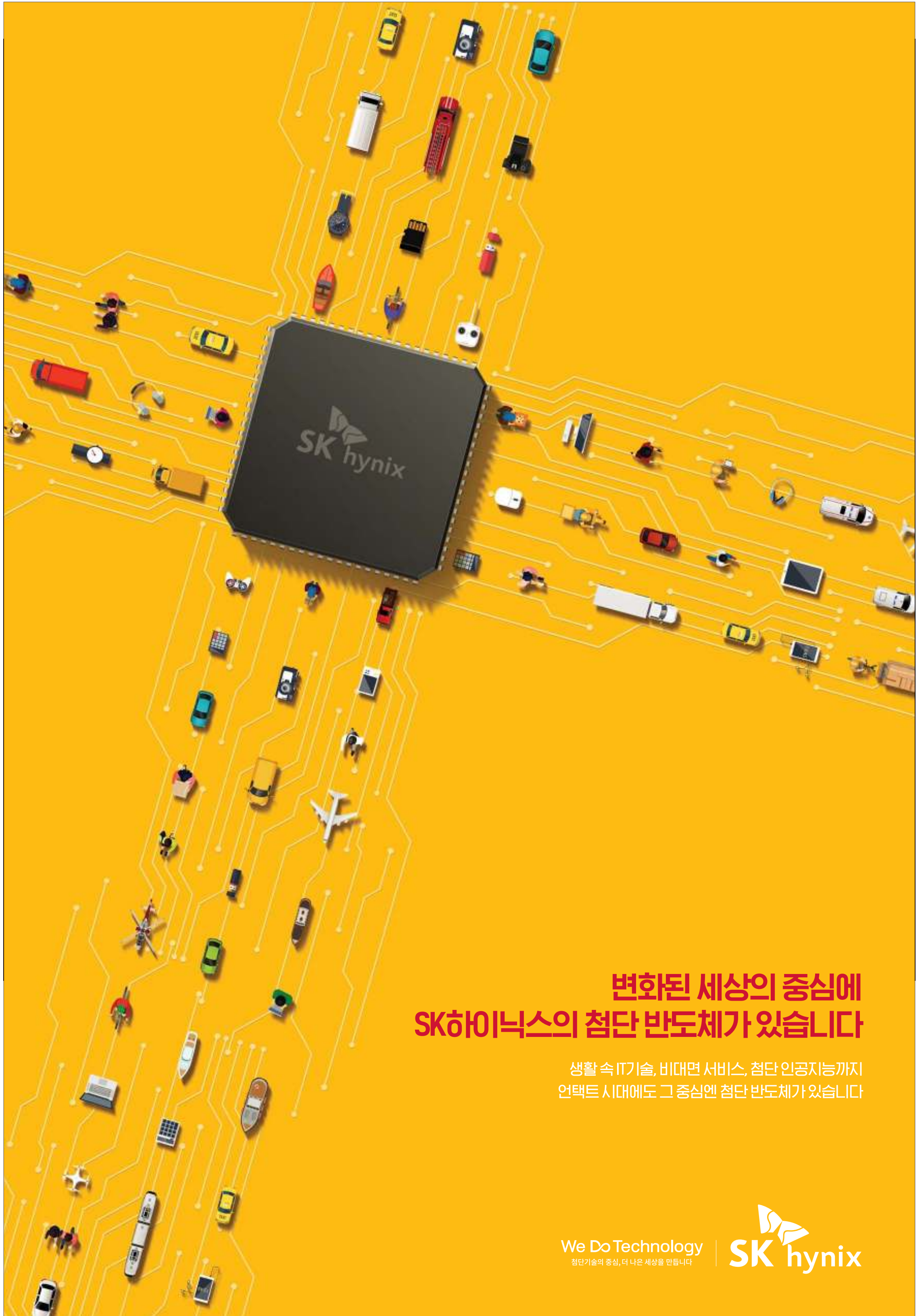
목검으로 간단히 제압해 버린다. 이제 세상이 그의 실체를 안 이상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고수의 솜씨를 숨기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검객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칼을 들고 화끈한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싶지만 사무라이는 여전히 망설인다. 그저 폼 나게 검을 휘두르기에는 치매 걸린 노모와 아직 돌봐야 할 여식이 들

이나 남아 있다. 카메라는 다다미방 안의 식사 장면을 빈번하게 보여준다. 사무라이의 밥그릇은 멀건 죽만 있을 뿐이다. 이 비루한 삶이 사무라이의 앞길을, 검객의 화려함을 담당할 정도로 계속 막아낸다. 그래서 더 짠하다.

김훈의 에세이 ‘밥벌이의 지겨움’을 보면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라고 적었다. 일본 막부시대 ‘폼생폼사’였을 것 같은 사무라이도 ‘먹고사니즘’의 송고함은 피할 길이 없었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 변화된 세상의 중심에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생활 속 IT기술, 비대면 서비스, 첨단 인공지능까지  
연택트 시대에도 그 중심엔 첨단 반도체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